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매뉴얼

(중 · 고등학생용)

총괄책임자 :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

집필보조 책임연구원 : 조예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 발간문

미래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청소년 스스로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거의 모방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키워줄 수 있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글로벌 한 세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학교와 지역사회 및 세계사회의 중요 구성원으로서의 역량과 덕목을 함양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고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함양 할 수 있는 매뉴얼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며 그 열 번째로 「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형식이 그렇듯이 민주시민교육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은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향하는 열린수업모형과 활동지향학습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려는 집단적 학습형태인 참여식 교수기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참여식 교수기법은 민



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청소년들이
장차 사회와 정치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 ·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사회관계 전망 등을 제공하고 풀어나가는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진행자가 쉽게 적용과 응용이 가능하면
서도,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learning to live together)' 을 키우는데
본 매뉴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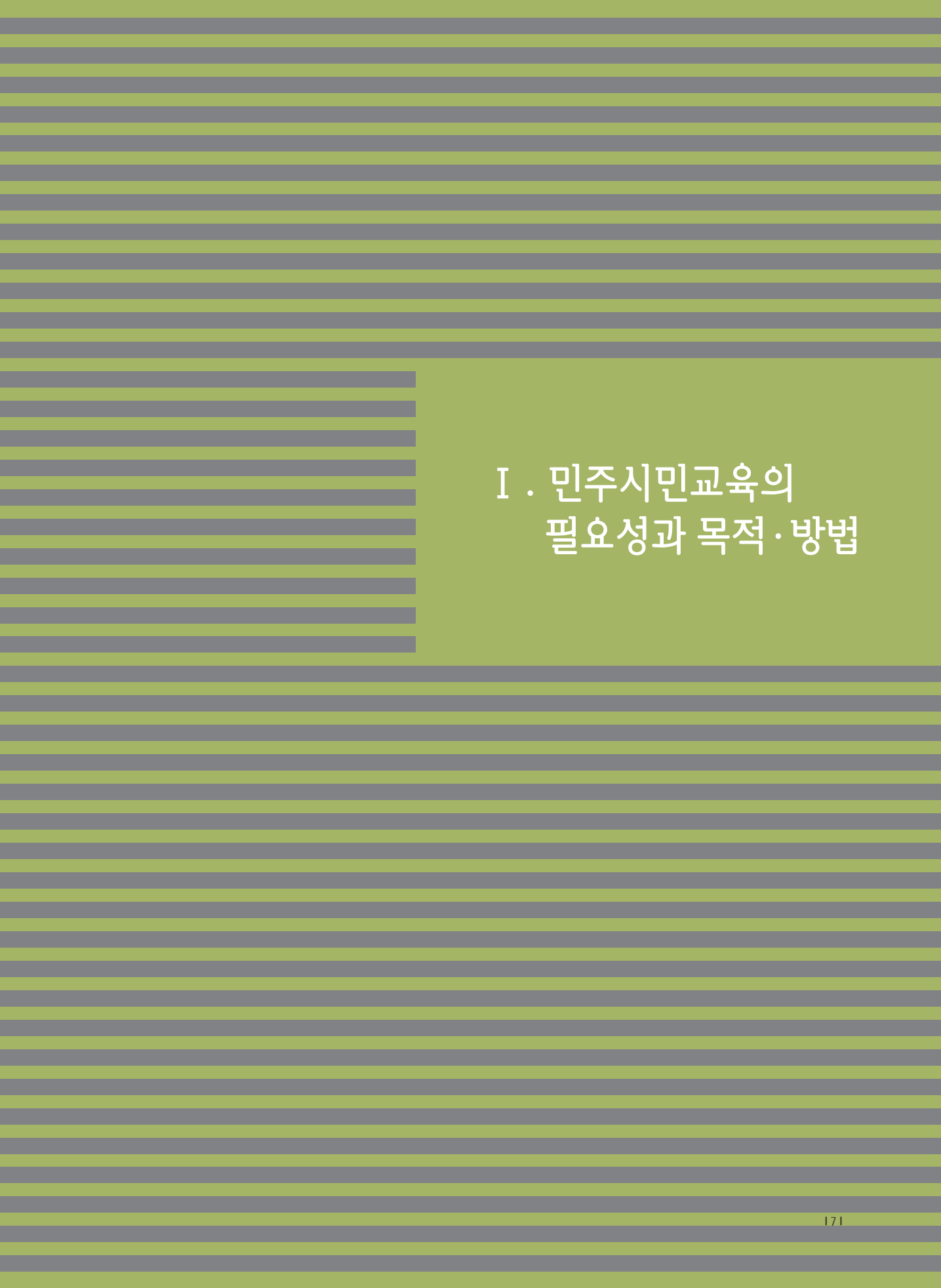
원장 이 명 석

I 목차

I.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 방법	06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08
2. 참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방법	09
II. 민주시민교육 영역	12
1. 마음열기 영역	14
· 1-1 내가 말할 때	15
· 1-2 껴속말 전달	18
· 1-3 나를 믿어봐	21
· 1-4 효과적인 자기표현 : 나 전달법(I message)	22
· 1-5 번개	24
· 1-6 브레인 라이팅(Brain-writing)	26
2. 참여 영역	28
· 2-1 모서리 게임	29
· 2-2 대화 연습 기법	30
· 2-3 거리두기	38
· 2-4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을 이용한 사회참여 수업	39
3. 소통 영역	54
· 3-1 천사와 악마게임	55
· 3-2 포토 스탠딩(Photo standing)	60
· 3-3 신호등 토론법	63
· 3-4 그룹토론	65

· 3-5 찬반토론(Pro&Contra debate)	82
· 3-6 피라미드 토론법(Pyramid Debate).....	93
4. 협상 및 정치 영역	96
· 4-1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	
: 최근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 갖기	97
· 4-2 연필게임	99
· 4-3 터부 토론.....	101
· 4-4 모의선거: "기권은 싫어요"	104
· 4-5 선거시물레이션: "꼼꼼히 따져보아요"	108
· 4-6 협상기법: 소가 필요해	112
· 4-7 시사만평(풍자만화).....	115
5. 마무리하기 영역	126
· 5-1 별집.....	127
· 5-2 10초 퍼즐	129
· 5-3 마인드 맵핑(Mind-mapping).....	131
·참 고 문 헌	134





I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목적·방법

1.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사회는 지난 반 세기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변화의 범위는 정치체제·이데올로기에서부터 시민사회·사회운동, 문화생활과 사회인식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다양하다.

민주화 이후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확보하였지만, 민주주의의 심화단계에서 한국 민주정치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방향과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적으로 얽혀 한국 민주정치의 운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자유민주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한국 민주정치의 민주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이에 따르는 부담과 비용은 한국 국민 개개인에게 전개될 것이다. 원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민의식과 자기계발 그리고 폭발적인 참여열정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은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경쟁적 사회 분위기, 정치·사회적 갈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요인과 함께 적절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교수방법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정규교육의 틀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는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며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통합성과 일체성을 높이는 가치적인 측면과 다원성을 수용하는 개인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학문과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적인 개념규정 자체가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할 수가 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정치적 질서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조직·제도 및 매체를 통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집합개념이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과 성인이 사회·정치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된, 그리고 지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모든 교육시설의 조직을 가리키는 집합명칭이다. 이 좁은 의미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특정한 교과, 이를테면 사회과, 도덕·윤리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교과에 두루 걸치는 수업원리로서 행해지거나 아니면 학교 밖의 제도를 통해 행해진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주제들이지만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양성평등 등이 21세기 핵심 주요 사안으로 여기에 포함된다.

모든 교육형식이 그렇듯이 시민교육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태도와 행동상의 단계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무리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과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 발전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사회교육은 제도교육과 구분되나 제도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배우는 장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일반인들이 원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집에서조차 자료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참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방법

민주시민교육은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향하는 열린 수업모형과 활동지향학습 등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법을 촉진할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우리교육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현장에서도 제한적이지만 국가기관(예 : 선거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강연중심의 교육을 보완하여,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려는 집단적 학습형태인 참여식교수법이 부각되고 있다(신두철 2003b). 참여식교수법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참가자 중심의 교수방법이며 시각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수 기법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교수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정치사회와 정치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사회관계 전망 등을 제공하고 풀어가는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의 기본모형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그 하나는 닫힌 모형(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가르치기')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함축하고 있는 열린 모형('작업 또는 학습활동을 통한 획득')이다. 전자를 '내용전달'의 수업방법이라 칭하고, 후자를 '문제해결'의 수업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기법·전략을 비교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수방법은 크게 '내용전달'과 '문제해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를 직접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교사나 강사는 내용전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는 교사는 문제해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전

달과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매우 큰 범주로 나누어진다면, 교수기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사가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직하는 방식, 간단히 말해서 그의 전체적인 철학적 접근이 방법이라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가 활용하는 특정한 수단의 선택이 바로 기법이다. 그리고 전략이란 주어진 기법선정을 조직하는 특수한 방식을 가리킨다.

주어진 내용을 교수하는 데 있어 가르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이 방법을 가리킨다면, 이 방법수준에서 전달이나 아니면 문제해결이나가 정해진다. 교수기법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능동적인 학습에도 기여할 수 있고 수동적인 학습에도 기여할 수 있다(기법의 보기: 집단학습, 패널토의, (논쟁적) 대립토의, 구안법, 강의법 등). 그 다음에 방법을 실천에 옮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법을 조정하거나 조직하는 방식인 전략이 강구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의 것은 어떤 주어진 정보 또는 내용(즉, 지식과 기능)을 교사나 강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또는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선형적인' 수업형태에 대응하며, 뒤의 것은 다루어야 할 어떤 주제·문제·과제 또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활동과 이것을 위한 교사의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동심원적인' 수업형태에 대응한다.

단한 수업모형에서는 직접적인 방법과 수업이, 열린 모형에서는 간접적인 방법과 수업이 주를 이룬다. 닫힌 모형에서는 제시·전달·이야기·강의·시범·설명 등이 행해지고 교사의 지도단계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에 비해서 열린 모형에서는 학습자의 자유학습·활동지향·경험지향·본보기(혹은 사례)학습, 구안법에 따른 수업의 원리가 강조된다.

〈표 1〉 닫힌 모형과 열린 모형

닫힌 모형	열린 모형
내용전달	문제해결
선형적 수업형태	동심원적 수업형태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
제시, 전달, 이야기, 강의, 시범, 설명	자유학습, 활동지향, 경험지향, 본보기학습, 구안학습

전체적으로 보면, 두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적 사고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그때그때 그 두 모형을 서로 잘 조합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민주시민 교육에서 열린 모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 활동지향 그 자체가 수업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활동에 지향을 둔 수업에 있어서조차 도입·설명·정보제공·연습·정리·적용·반복 등의 시간과 단계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슴·손을 활용하는 학습으로서의 활동지향학습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이고 수용

적인, 그리고 일차원적인 정면수업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 되는 수업원리로서 기능을 한다. 여기서 활동지향은 실천학습,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사회적 학습, 의사소통학습, 구안법(project method)에 지향을 둔 학습, 학습자지향학습, 전체적(또는 총체적) 학습 등을 추구하는 수업의 준거점이 된다.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습활동이 특히 자기인식 또는 자기계몽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해석유형과 가치판단이 문제시되며, 이것들은 또한 현실과 학문적 연구결과에 비추어 검토된다. 구체적인 학습상황, 그리고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수업상황에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부응하여 행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도 포함되며, 자기 자신의 요구 및 기대와는 어긋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 또는 모순되는 상황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된다.

그리고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은 어느 정도 개방된 상태로 언급되고 다루어져야 하며, 방법적 행위에서 그때그때 결과하는 서로 다른 학습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적절한 학습상황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적 행위의 요인을 표로 제시한다.

〈표 2〉 방법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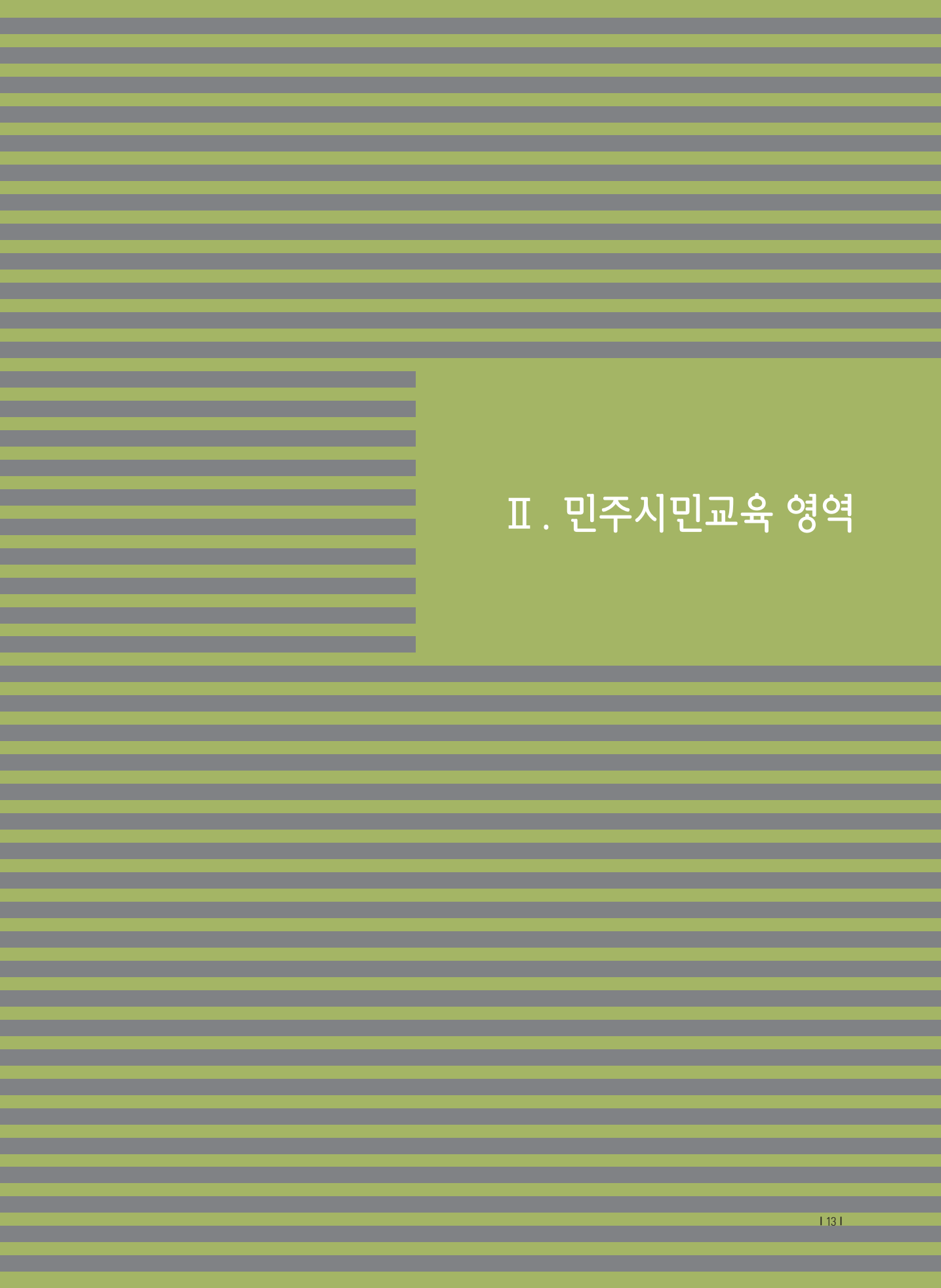
거시수준	(1) 수업형태
중간수준	(2) 수업단계 / (3) 수업기법 / (4) 사회형태
미시수준	(5) 수업양식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적 기초에 관해서 말한다면, 교수·학습 방법의 기본모형과 더불어 특히 방법적 행위의 요인과 특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을 교육상황(혹은 수업상황)과 여건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교육참여자 혹은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이 글에서는 방법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방안으로서 활동지향학습과 문제지향학습을 강조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내용분석모형, 미래워크숍(혹은 환상여행) 등의 방법과 기법을 적용한 학습자료와 수업지도안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학습 자료와 수업지도안을 본보기로 하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과 기법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 및 활용되는 것이 요청되며, 실제적인 교육과 수업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그러한 방법적 접근방안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 민주시민교육 영역

1. 마음열기 영역



1-1 내가 말할 때



1) 교육목적

-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임을 체험한다.
- 자유토론을 위한 듣는 자세를 익힌다.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2) 교육구성

단 계	주 요 활 동	소 요 시 간
도 입	원으로 세운 후 과제 제시	5 분
전 개	제 1 과제 및 행동	5 분
	제 2 과제 및 행동	5 분
마 무 리	평가 및 정리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 ① 참가자들은 2인1조로 짝을 지은 후, 한명은 A조로, 다른 한명은 B조로 나눈다.
- ② 각조의 참가자들에게 각각의 과제를 준다.
A조 조원들에게는 "연수가 끝난 후 내가 할 일" 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B조 조원들에게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고 딴청을 하라" 는 과제를 준다. 각 조원들
에게 각자의 과제는 상대가 알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③ 참가자들이 준 과제대로 3분 동안 행동하게 한다.
- ④ 역할을 바꾸어 B조 조원들에게는 "연수가 끝난 후 할 일 이야기하기" 과제를 준다. 그리고 A조
조원들에게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는 말, 행동을 하라"는 과제를 준다.
- ⑤ 게임이 종료된 후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한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의 느낌을 공유하는 것은 평소의 자신의 듣기 습관을 되돌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듣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므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시킨다.

〈tip〉

게임 진행시, 조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언급하면, 느낀 점을 공유할 때 더 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

게임을 종료한 후 느낀 점을 공유할 때 참고자료1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5가지 수준을 말해준다. 그 후 공감적 경청이 가장 바람직하고, 대화를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듣는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 3) 교육성과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배움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나의 듣기 태도를 되돌아 볼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을 때의 감정을 경험해 보면서 듣는 배려자세를 가지게 된다.

→ 참고자료 1

1.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5가지 수준

-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 » 전혀 듣지 않는다.
-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체한다("응, 그래. 그렇지. 맞아")
- 선택적 청취 : 대화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듣는다.
- 신중한 경청 :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충력을 집중하여 듣는다.
- 공감적 경청 :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한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한다.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 중 10%만이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된다.

-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 60%는 신체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 공감적 경청은 귀로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이때 우리는 그 말이 갖는 느낌과 의미를 경청한다. 나아가 행동도 경청한다.

3. 네 가지 자서전적 반응

- 판단하다-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
 - 탐사하다-우리 자신이 가진 증거 틀에 입각하여 질문하는 것
 -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하는 것
 - 해석하다-자기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Stephen R. Covey, 김영사, 1994)

4. 적극적 청취(Active listening)

- 적극적 듣기는 존중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 화자는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5. 청취의 장애물

- 비교하기 · 마음 읽기 · 예행연습 · 걸러듣기
- 판단하기 · 공상하기 · 확인하기 · 충고하기
- 언쟁하기 ·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 주제 이탈하기 · 비위 맞추기

적극적인 듣기 요령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말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기술)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말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기술)
눈 접촉: 상대방에 초점 맞추기	말로 용기를 주기 예: "응, 응" "좀더 상세히 설명해 보렴." "맞아!"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잠자코 앉아 있기, 물건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놀지 않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해보기
말하는 데 끼여들지 않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끝마치게 하기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반성해 보기
관심을 가지고 침묵하기: 상대방이 응답할 시간을 주기	열려진 질문을 던지기. 예: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니?" 등

→ 1-2 귓속말 전달

→ 1) 교육목적

-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왜곡되는지 체험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② 준비물 - 전달할 내용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개요 설명, 학습 동기 유발	5 분
전개	모둠을 나누고, 쪽지를 나눠줌 귓속말 전달을 한 후, 원래의 내용과 비교	10 분
마무리	토론, 확인 및 정리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 ① 참가자들을 5명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을 일렬로 서게 한다.
- ② 각 열의 맨 앞에 선 사람에게 지문이 적힌 쪽지를 주고 외우게 한다.
- ③ 쪽지를 다시 거둔다.
- ④ 진행자가 '시작' 소리를 하면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귓속말로 바로 뒷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다.
- ⑤ 뒷사람은 그 뒷사람으로 계속 전달한다.
- ⑥ 마지막 전달받은 사람은 나와서 칠판에 들은 내용을 쓰게 한다.
- ⑦ 각 모둠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원래의 내용과 비교한다.
- ⑧ 지문과 의미가 달라졌다면 왜 그런지 전체 토론한다.
- ⑨ 첫 사람이 이해한 지문을 이야기해보게 한다.

⑩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진행자가 이야기해준다.

〈Tip〉

- 참고사항 : 지문은 짧은 대화체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맥락이 있는 이야기로 정할 수 있다. 긴 이야기로 할 때에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지문을 만들거나 또는 거를 때는 맥락이 있는 것이 좋다. 즉, 그 문장만으로도 의미가 통하지만 앞뒤 맥락을 모르고 그 문장만을 이해할 경우 의미가 달라지는 지문이 교육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시 말해서, 말을 여러 번 전달하면서 얼마나 말이 달라지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지만, 전체를 모르고 일부분만을 이해했을 때 얼마나 의미가 달라지고 오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3) 교육성과

- 전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의사소통과정에서 자기 중심으로 듣는 자세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 참고자료 1

【지문 1】 애들아, 너희들 화장실에 조심해서 다녀라.

지민이가 조심하지 않고 가다가 넘어져서 바지를 다 버렸어.

아이들이 오줌 싸다고 놀리니 그만 말도 못하고 울고 있잖아.

『선생님, 나 집에 갈래요』 (윤태규, 보리출판사 2002에서 인용)

이 이야기의 맥락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지민이가 오줌을 싸서 아이들이 놀리니까 그 놀림을 막기 위해 오줌싼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옷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지문 2】 그렇게 직업관이 확실하면 너는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네.

빵 만드는 것도 기술이니까 이론보다 실습이 더 중요한 거잖아.

괜히 점수에 맞춰서 네가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는 대학 공부하느라

시간 낭비하느니 일찌감치 네 전문분야에 주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딸들에게 희망을』 (오숙희, 석필, 1996)

→ 참고자료2

1.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5가지 수준

-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 » 전혀 듣지 않는다.
-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한다("응, 그래. 그렇지. 맞아")
- 선택적 청취: 대화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듣는다.
- 신중한 경청: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하여 듣는다.
- 공감적 경청: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한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한다.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 중 10%만이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된다.

-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 60%는 신체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 공감적 경청은 귀로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이때 우리는 그 말이 갖는 느낌과 의미를 경청한다. 나아가 행동도 경청한다.

3. 네 가지 자서전적 반응

- 판단하다-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
 - 탐사하다-우리 자신이 가진 준거 틀에 입각하여 질문하는 것
 -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하는 것
 - 해석하다-자기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Stephen R. Covey, 김영사, 1994)

4. 적극적 청취(Active listening)

- 적극적 듣기는 존중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 화자는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5. 청취의 장애물

- | | | | |
|-----------|----------------|--------|--------|
| · 비교하기 | · 마음 읽기 | · 예행연습 | · 걸러듣기 |
| · 판단하기 | · 공상하기 | · 확인하기 | · 충고하기 |
| · 언쟁하기 | ·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 | |
| · 주제 이탈하기 | · 비위 맞추기 | | |

적극적인 듣기 요령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말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기술)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말없이 대화에 참여하는 기술)
눈 접촉: 상대방에 초점 맞추기	말로 용기를 주기 예: "응, 응" "좀더 상세히 설명해 보렴." "맞아!"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잡자코 앉아 있기, 물건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놀지 않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다시 말해보기
말하는 데 끼어들지 않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끝마치게 하기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반성해 보기
관심을 가지고 침묵하기: 상대방이 응답할 시간을 주기	열려진 질문을 던지기. 예: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지?"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니?" 등

→ 1-3 나를 믿어봐

→ 1) 교육목적

- 타인을 신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하여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 의사소통에서 신뢰가 상호작용을 높인다는 것이 체험한다.
- 교육초기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좀 더 친근한 분위기로 바꾼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15분 내외
- ②준비물 - 없음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게임 방법 설명	5 분
전개	게임 진행	5 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15 분

→ (3) 진행순서

- ① 두 사람씩 짝을 정하게 한다.
- ②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선다.
- ③ 뒷사람은 오른 발을 뒤로 넉넉하게 물린 다음 왼쪽 무릎을 굽히고 양팔을 가슴 옆에 대어서 앞사람을 받을 자세를 취하게 한다.
- ④ 앞에 선 사람은 시선 방향을 그대로 두고 깨끗하게 선 채로 뒤로 넘어지도록 한다. 이때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된다.
- ⑤ 뒷사람은 넘어지는 앞사람의 몸을 손으로 몸을 잘 받도록 한다.
- ⑥ 반대로 반복하게 한다.
- ⑦ 넘어질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받는 사람은 어땠는지 느낌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 3) 교육성과

- 타인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통해 신뢰성을 익힌다.
- 신뢰 형성을 통해서 의사소통방법을 익힐 수 있다.

→ 1-4 효과적인 자기표현

→ 1) 교육목적

- 나를 주어로 한 자기표현을 연습함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의 대화 방법을 익힌다.
-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 바람, 필요, 관심사 등을 전달하는 방법을 익힌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30분 내외
- ② 준비물 - 나 전달법 연습지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 입	개요설명 및 용지 배부	5 분
전 개	나 전달법으로 바꾸어 보기	15 분
마 무 리	결과 발표 및 정리	10 분
		총 30 분

→ (3) 진행순서

- ① 연습지를 나눠준다.
- ② 나 전달법으로 각자 바꿔보게 한다.
- ③ 결과를 전체적으로 발표하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만들어본다.

→ 3) 교육성과

자기표현을 연습함으로써 평화적 갈등해결의 대화 방법을 익히고, 타인과 함께 공생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 바람, 필요, 관심사 등을 전달하는 방법은 시민으로써 중요한 자세이다.

→ 참고자료1

나 전달법(I Message)

나의 느낌, 바람, 관심사 등을 나를 주어로 말하는 화법으로,

상대를 주어로 하는 화법이 상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 반해 나 전달법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느낌, 바람, 관심사 등을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흐르지 않고, 문제의 원인, 문제 자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 나는 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무슨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많이 걱정했어.
나는 _____ 일 때, _____ 라고 느껴.
왜냐하면 _____ 때문이야. (감정, 이유에 대해 나를 주어로 밝힌다.)

연습문장

- 너희 집에는 전화도 없니? 넌 왜 매일 너만 생각하고 사무실에서 사적인 전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
- 무슨 계집애가 뭐하느라고 이렇게 늦게까지 씨돌아다니니? 좀 일찍일찍 오면 어디가 닳나?
- 너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파. 네가 할 일을 자꾸 미루면 그건 결국 누가 하나?
- 왜 맨날 니맘대로야! 같이 의논해서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난 뭐 니 봉이냐?
- 그런 일은 나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지. 자네는 내가 직속상사라는 것을 모르나? 정말 아래위도 없는 사람이군!
- 왜 이렇게 일이 늦는거야. 좀 빨리빨리 할 수 없나?

→ 1-5 번개

→ 1) 교육목적

-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기본 지식정도를 알 수 있다.
- 학습자들의 학습분위기 전환 및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10분 내외

→ (2) 교육구성

단 계	주 요 활 동	소 요 시 간
도 입	자료준비, 자리배치 및 개요설명	2 분
전 개	질문 및 응답	5분
마무리	정리	3 분
		총 10 분

→ (3) 진행순서

① 번개는 교육의 진행자가 아무 때나 번개처럼 생각나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대답 역시 1분을 넘지 않게, 가능하면 한 문장 정도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번개같이 대답한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 번개를 교육의 맨 처음, 즉 참석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할 경우: 이번 교육에서는 특별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번개를 아침교육 시작 직전 혹은 점심을 먹은 후 나른할 때에 사용할 경우: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
- 번개를 강의가 끝나고 혹은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사용할 경우: 오늘은 어떤 경험이 혹은 주제가 중요했나요?
- 전체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정도를 알기 위해 번개를 사용할 경우: 큰 윤곽이 주어진 주제나 문제에 대한 견해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간략히 표현하게 할 수도 있다.

물건을 사용한 번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촌지봉투를 맨 처음 사람이 받아 자신이 느끼는 것을 번개처럼 짧게 이야기 한 뒤 다음 사람에게 그 봉투를 건네는 방식도 가능하다.

〈Tip〉

진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꼭 어떤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이 없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순서를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넘길 수도 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번개를 진행하는 도중에 토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자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단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밝힐 뿐이다.

- ② 번개에는 연결작업이 필요치 않다. 번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주제를 위한 어엿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 다음의 진행을 위한 결정의 토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번개를 통해 가시화된 각종 견해들에 대해 전체토론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번개는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여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룹 내의 분위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용될 수 있다.

→ 3) 교육성과

- 짧은 시간에 학습자들의 상태와 학습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1-6 브레인 라이팅(Brain-writing)

→ 1) 교육목적

- 참가자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끔 유도한다.
-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② 준비물 - OHP필름, 전지, 소포지, 펜 등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개요설명 및 조편성	5 분
전개	Brain-writing	10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Brain-writing도 Brain-storming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작업이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로 발표하는 Brain-storming과는 달리 Brain-writing은 글로 적어낸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의 Brain-writing을 소개한다.

◆ A형 Brain-writing

- 이 게임은 2인 1조, 4조 1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두 명을 한 조로 하고 네 개의 조를 한 팀으로 묶어 조편성이 끝나면 진행자는 이미 주제가 맨 위에 적혀있는 종이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종이를 받은 참여자는 혼자서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는다.
- 아이디어를 모두 다 적은 참여자는 파트너와 함께 각각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본다. 이때 가장 먼저 발견된 공동의 아이디어를 OHP 필름에 적은 후 옆 조로 전달한다.

- OHP 필름을 넘겨받은 다음 조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가 함께 내린 공동의 아이디어가 이미 OHP 필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적은 후 다음 조에게 넘겨준다.
- 이런 식으로 팀에 속한 모든 조가 답이 완전히 적을 때까지 쓰기를 계속한다.
- 각 조별로 다른 주제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모을 수도 있다.

◆ B형 Brain-writing

- 참가자들을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로 나눈다.
 - 각 조에는 전자나 소포지를,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매직펜을 나누어준다.
 - 참가자들은 조별로 자신들이 받은 소포지를 중앙에 놓고 둘러선다. 소포지의 중앙에는 이미 그 조가 다룰 주제가 기록되어있다.
 -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데로 단어들을 기록한다. 기록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 써넣은 것처럼 보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종이를 중심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써넣었는지를 읽어보게 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떠오른 두 번째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한다.
- 이렇게 모아진 아이디어는 교육의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아주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Brain-writing 다음 단계가 Mind-map이면 Brain-writing한 전지를 옆에 놓고 그 안에 쓰여진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지워가며 Mind-map을 완성할 경우 모든 생각들을 빠짐없이 다 Mind-map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Tip〉

- 게임에는 다음 규칙이 있다.
- 말이 필요 없다.
- 비판할 수 없다.
-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 단어들과 간단한 문장 중심으로 작성한다.

→ 3) 교육성과

- 아이디어의 다양성과 이를 인정하는 자세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다.

2. 참여 영역



2-1 모서리 게임



1) 교육목적

- 연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에 대한 입장을 알게 한다.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30분 내외
- ② 준비물 - 세미나 참석자들과 주제에 맞추어 질문들과 대답 준비, 강의실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자료준비, 자리배치 및 개요설명	5 분
전개	첫 번째 게임	10 분
	두 번째 게임	10 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30 분

→ (3) 진행순서

- ① 모서리 게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강의실에서 게임이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참석자들을 그 강의실의 중심에 모이게 한다.

- ② 게임 진행자가 질문을 제시한 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네 개의 답을 불러준다.

(예: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가. 첫 번째 게임의 질문은 비교적 일반적인 것들로 꾸며진다.

나. 두 번째 게임은 세미나의 주제에 관련되어 결정 내려야 할 문제들로 구성할 수 있다.

- 질문의 예시 : “열애중인 여자와 남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들의 애정표현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형태 중 한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서리, 아무리 가까워져도 15~2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둘째 모서리, 손을 잡

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이다. 셋째 모서리,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모서리, (책임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애정표현을 다 해도 괜찮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서리를 지지하십니까? 그 쪽으로 가신 뒤에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과 이유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뒤에 전체로 모여 각 모서리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밖에도 같은 혈액형별로 묶거나, 청소년 담당간사·사회 사업부 간사 등 활동영역별로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교육의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파급되지 않는 요인 네 가지, 정치적 성향을 묻고 싶으면 4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사진 4장, 여행하고픈 곳을 묻고 싶으면 유명 여행지가 속한 나라의 국기 4장, 교육의 문제점 중 최우선 해결과제를 알고 싶으면 교육현안 중 문제점 네 가지 등도 가능하다.

③ 강의실의 네 귀퉁이에 서로 다른 답을 지정한다.

(예: 빨간색=첫째 귀퉁이, 푸른색 = 둘째 귀퉁이, 노란색 = 셋째 귀퉁이, 녹색=넷째 귀퉁이)

- ④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귀퉁이로 가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 각 귀퉁이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⑤ 이 게임을 통해 참여자들의 주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알 수 있다.

〈Tip〉

주제와 관련하여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끼리 모인 후 그 이유와 전략을 공유한다.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게임이다.

→ 3) 교육성과

- 주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생각을 공유하여 다시의 주장의 명확히 할 수 있다.
- 주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2-2 대화 연습 기법

→ 1) 교육목적

- 민주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운다.
-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다른 사람의 말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발표한다.
- '청소년 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150분

② 준비물 - 숙답목록, A4용지, OHP 필름, 귀마개, 기사 2개, 듣기훈련요약
- 의견기록서 "너는...나는...", 평가서, 펜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 입	숙답을 말없이 몸으로 표현하여 전달하기	20 분
전 개	대화하기	30 분
	휴식	10 분
	기사전달	40 분
마무리	의견기록서 및 평가서 작성	50 분
		총 150 분

→ (3) 진행순서

① 숙답을 몸짓으로 전달하기

가. 5~6명씩 모둠을 만들어 앉고, 대표자를 뽑는다.

나. 진행자는 각 대표자에게 숙답목록(참고자료1 참조)을 주고, 게임을 시작한다.

다. 10분 이내에 몇 개의 숙답을 맞추었는지 기록한다.

라. 몸짓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다.

마. 이해하지 못한 숙답에 관한 질문 등 의견을 교환한다.

② 대화나누기

가. 두사람씩 짝을 지어 앉고, 약 1분간 최근 폭력에 관한 경험이 있는 생각한다.

나. 2명 중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듣는 역할로 나눈다.

다. 말하는 자는 자기가 당한 폭력이나 사용한 폭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듣지만 되도록 안 들으려고 노력한다. (이때 전체가 소란스럽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귓속말로 전달하고 듣는 자는 귀를 막지 않도록 한다. 약 3분간의 시간을 준다. 경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 역할을 바꾸어 해보고, 3개의 모둠이 모여서 다시 한 모둠을 구성하여 대표자 한명을 정한다.

마. 각 모둠은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듣는 사람의 좋은 태도, 나쁜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때 각 모둠의 대표자는 아무 의견도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A4용지에 기록한다.)

바. 각 대표자는 기록한 것들을 발표하고, 진행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정리한다.

③ 기사전달(진행자는 기사를 두 개 준비하여 각 그룹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참가자들을 5~6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일렬로 서게 한 다음, 맨 앞에 선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뒤로 돌아 귀마개를 한다.

나. 기사를 맨 앞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기사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쳐서 뒤돌아서서 귀마개를 빼게 한 다음 기사를 읽어 준다. 두 번째 사람은 들은 내용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전달한다.

다. 마지막 사람은 들은 내용을 종이에 적고, 처음 사람의 기사내용과 비교한다.

라. 각 모둠별로, 내용이 같은 경우와 다를 경우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발표한다.

마. 각 모둠별로, 잘 듣는 방법에 대해 5분간 논의한다.

바. 모둠의 대표가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사. 진행자는 '듣기훈련'에 대해 진행자용 자료로 정리한다.

④ 정리: "너는...나는..."

가. 2명씩 짝을 만들고, 의견기록서("너는...나는...")를 나누어 준다.

나. 우선 한명이 위에서 다룬 기사 중 하나(기사 1)에 대한 의견을 상대방에게 말한다. 상대방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적도록 한다.

다. 의견을 적는 동안, 다른 한명은 기사 2에 대하여 의견을 생각해 둔다.

라. 자기 의견까지 다 쓴 참가자는 이제 기사 2에 대한 의견을 상대방에게 말한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쓴다.

마. 3개의 모둠이 다시 한 모둠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바. 모둠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사. 진행자는 평가서를 나누어 주고, 이를 작성한다.

〈Tip〉

대표자 선출 시, 지난 프로그램에서 대표자를 하지 않았던 참가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 3) 교육성과

- 청소년 폭력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키울 수 있다.
-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청, 공감, 이해가 중요하다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 참고자료 1

속담 목록

-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 갈수록 태산이다.
-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 바위를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프다.
- 범 없는 골에는 토끼가 스승이라.
- 사나운 개 콧등이 물 틈이 없다.
-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 제 흉 열 가지 가진 놈이 남의 흉 한 가지를 본다.
-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닦은 데로 간다.
-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노릇한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21.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22.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 23. 험업 잘 치는 사람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잘 오르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 참고자료 2

10가지 좋은 듣기 태도 vs 10가지 나쁜 듣기 태도

좋은 태도	나쁜 태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함.	흥미 없는 주제라고 생각함
화자의 용모보다 내용에 훨씬 더 신경을 씀.	화자의 말솜씨, 외모 등 주변에 신경을 씀

회자를 판단하기 앞서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함.	미리 넘겨짚고서 반박할 궁리를 함.
중심생각, 원리, 개념에 귀를 기울임.	사실에만 귀를 기울임.
2,3분 간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함.	들은 내용 모두를 개관하려고 함.
듣는 동안 긴장을 풀지 않음.	가짜로 듣는 척함.
소음을 통제함.	주위의 산만 요인을 방지함.
어려운 내용을 듣기 위해 노력함.	어려운 내용은 듣지 않음.
자신이 어떤 표현에 신경을 쓰는지 알고 영향 받지 않으려고 노력	사소한 표현에 영향을 받음.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고 대조하고 요약하고 비판하면서 들음.	그냥 주어지는 정보만을 들음.

출처: 하치근, 구현옥, 『성공적인 말하기, 듣기』 p. 157.

→ 참고자료 3

● 기사1

20여일 복도생활 '여중생 체벌' 물의

[경향신문 2005-11-22 07:36]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이 20여 일간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복도에서 생활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가 항의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김해시 모 중학교 2학년 유모양의 학부모에 따르면 유양의 담임교사가 지난달 26일부터 체벌 차원에서 유양의 책상을 들어내 하교할 때까지 복도에서 생활토록 했다. 이 학부모는 "아무리 벌이라고 해도 수업권까지 박탈해가며 딸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최근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다. 학교 측은 "유양이 1학기 때부터 귀걸이를 하고 남자친구와 자주 다녀 여러 차례주의를 줬는데도 변화가 없어 담임교사가 벌을 준 것" 이라고 해명했다.

〈울산I 김한태기자〉

● 기사2

'눈 마주쳤다' 여고생 교복 벗긴 후 태워

[경향신문 2005-11-24 22:39]

버스 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교복을 벗겨 불태운 10대들이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오후 9시45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인천 시내를 오가는 버스 안. 오모군(17)과 정모양(15) 등 3명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모양(16·고2)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인천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빈 상가 건물로 끌고 갔다. 오군 등은 이양을 폭행해 2만5천원을 빼앗고 교복과 운동화를 벗게 해 그 자리에서 불태운 뒤 달아났다. 이양은 속옷 차림이어서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2시간가량 추위에 떨다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족과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경찰은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녹화 화면을 분석해 오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군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정양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군은 경찰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복을 벗게 했다"며 "이양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한대광기자>

→ 참고자료 4

듣기의 사고 과정

1. 앞질러 생각한다.
2. 들은 이야기를 평가한다.
3. 말한 내용을 음미한다.
4. 행간의 의미를 파악한다.

출처 : 전영우, 『토의토론과 회의』, p. 137~140.

듣기 능력의 향상 방법

1. '난해한 자료'를 경청한다.
2. '말하는 목적'을 알면, 듣기 역할을 잘 수행한다.
3. 주제에서 '흥미를 창출'한다.
4. '말하는 사람에게 적응'한다.
5. '물리적 정황(환경)'에 적응한다.

6. '감정을 억제'한다.

7. '아이디어와 추론' 형태를 주로 듣는다.

8. '여유시간'을 현명하게 이용한다.

출처 : 전영우, 『토의토론과 회의』, p147~153

→ 참고자료 5

의견기록서 “너는…나는…”

주제: (1) 기사1 (2) 기사2 (해당 기사에 표시를 하시오.)

너는

나는

-
- 주의 사항 : 참가자에 따라 '너', '나'는 '당신', '저'로 바뀔 수 있다. 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의견을 나눌 때, 존칭어를 써서 역할놀이의 느낌을 갖게 하면, 토론 분위기가 훨씬 차분해 질 수 있다.

→ 참고자료 6

평가서

1. 제일 재미있었던 게임은?

- | | |
|-------------------|--------------|
| (1) 속담을 몸짓으로 표현하기 | (2) 대화나누기 |
| (3) 기사전달 | (4) “너는…나는…” |

2. 듣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 | |
|----------------|----------------|
| (1) 물리적인 환경 | (2) 상대방에 대한 감정 |
| (3) 흥미로운 주제 | (4) 말하는 내용 |
| (5) 기타 : _____ | |

3. 적극적으로 듣기 위한 바른 자세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

.....

4. 제일 기억에 남을 경험은?

.....

.....

.....

5. 상기 프로그램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

.....

6. 조의 대표자가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 발표할 때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

.....

.....

7. 비행청소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

.....

.....

→ 2-3 거리두기

→ 1) 교육목적

- 수업 전 교육 분위기를 만들고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선입관을 알 수 있다.
- 수업을 통한 내용전달 정도를 알 수 있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20분 내외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개요설명	5 분
전개	거리두기 진행	10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 ① 거리두기는 수업에서 교육 할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참여자들을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 ② 세미나의 도입부에 사용하면 인간관계훈련이 되고, 강의직전에 사용하면 참여자들의 선입관과 지식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며, 강의를 끝난 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목적하는 바의 전달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교육기법이다.
- ③ 먼저 충분한 활동공간이 마련된 강의실 중앙으로 참가자들을 모은다. 참가자들이 아주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어 할 만한 물건을 강의실 중앙의 소탁자에 올려놓은 뒤 그 물건에 대한 개인적 느낌이나 감상을 실제의 거리로 표현하게 한다.
- ④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다. 마음의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물은 후 몸을 움직여 각자의 거리를 두도

록 지시한다.

- ⑤ 예를 들어 그 물건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실제로 아주 가까이 서고, 반대로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시거나 멀리하고 싶은 참가자는 아무 멀리 거리를 두게 한다.

〈Tip〉

참가자들은 거리, 방향, 높이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교수자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 3) 교육성과

- 평소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소극적인 청소년들에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2-4 창의적 재량 활동시간을 이용한 사회참여 수업

→ 1) 교육목적

-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익힌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익힌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느낀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11차시(한 학기)

② 준비물 - 학생들의 사회 참여 사례(보고서)

- 대니 서 관련 영상물 또는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 책 "난 두렵지 않아요 : 아름다운 소년, 아크발 이야기"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사회 참여 수업 안내 및 다른 학교의 수행 평가 사례 제시	1 차시
사회 참여의 필요성	비디오 시청: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22살-대니 서 또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 차시
	독서: "난 두렵지 않아요."	3 차시
	그림 그리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표현	4 차시
문제 선정 및 대안 모색	모둠 나누기 및 모둠별 모임	5 차시
	분야별 문제 원인 분석	6 차시
	분야별 문제 원인 분석 및 대안 찾기	7 차시
실천 및 보고서 작성	사회 참여 방안 논의 및 실천	8~9 차시
	보고서 작성	10 차시
발표 및 평가	사회 참여 과정 발표 및 평가	11 차시
		총 11 차시

→ (3) 진행순서

- ① 1차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안내에 충실해야 한다. 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사회 참여의 사례를 제시한다.
- ② 2차시: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의 환경 운동가인 대니 서에 관한 영상물 또는,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를 시청하고 설문지(1)를 작성한다.
- ③ 3차시: 책 "난 두렵지 않아요"의 독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아동 노동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설문지(2)를 작성한다.
- ④ 4차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고 자기의 바람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 ⑤ 5~9차시: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사회 참여를 위한 계획을 짜고, 이를 실천한다. 매 시간 질문이 있으면 답하고 사회 참여의 방법을 사례별로 제시한다.

» 학생들의 유의사항

- 가. 사회 참여의 주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점으로 한다.
- 나.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며, 합리적 대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모둠별 토의시간을 많이 가진다.
- 다. 사회 참여의 과정을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의논한다.
- 라. 모둠의 구성원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도 교사의 유의사항

- 가. 주제 선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이지 못한 주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없으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 나. 모둠 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 참여의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바람직한 참여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다. 과정 중 특별한 변화나 성취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신감을 얻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야 한다.

⑥ 10~11차시 : 보고서를 제출하고, 전체적인 평을 한 후 각 모둠별로 발표를 하고 정리한다.

⑦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선생님, 학생들이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ip〉

학생들이 그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교실이나 복도에 전시한다던지, 학교 축제 기간에 여러 명이 참가하는 형태로 바꾸어 대형 그림판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학생들의 보고서를 전시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특히 전국 청소년 사회 참여 대회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믿음과 또래들 간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이어서 사회 참여 수업을 했다면 꼭 참가하기를 권한다.

→ 3) 교육성과

- 청소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익힌다.
-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 설문지 1

“난 두렵지않아요” 를 읽고

학년 반 번
이름

1. 대니 서가 "Earth 2000"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 대니 서는 TV 심야 토론 프로그램에서 닭 도살 장면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지구 환경을 위해 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내 일생 동안 꼭 지켜나가야겠다.” 라고 다짐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대니 서가 제안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 여러분이 22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자신의 모습을 짧게 써 보세요.

5.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6.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분야에 자신의 힘을 쏟겠습니까?

→ 설문지2

“난 두렵지않아요” 를 읽고

학년 반 번
이름

1. 아크발은 왜 카펫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2.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도 왜 카펫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빛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3. 아크발은 완성한 카펫을 왜 찢었을까요?

4. 여러분이 만일 제3세계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6. 동남아시아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생리대 부가세 면세에 대하여

대전 성모 여자고등학교 1학년
구연지, 김혜은, 노소용, 홍포근

1.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원인분석

과연,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여성들의 생필품인 생리대에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부가가치세란 생산단계 또는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세액에 과세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조세이다.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 세액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0% 정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 대상 범위는 기초 생활필수품과 용역, 국민주택,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 보험용역 등과 같은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 역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중 가임기간(대략 15세에서 49세)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대략 1천 3백만 명, 2001년 통계청 통계)들이 필요로 하고 있기에 여성들에겐 당연히 기초 생활필수품이다. 여성에게 있어 생리대 구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생필품이라 한다면 분명 사회 구성원인 여성의 생필품이며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미네소타주와 호주는 여성용 패드 생리대와 탐폰의 거래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오타와주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주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여성용 패드 생리대와 탐폰은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다. 생리대의 필요성은 여성들의 생리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사회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특성이다. 결국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생리대 면세 주장에 대한 입장은 '여성의 몸, 건강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 즉, 모성보호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와 직결된 것이다. 또한, 그 지출의 이면에는 여성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사회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생리대가 농산물이나 의료 서비스 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문제에 대한 대안과 그 대책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었다는 사실과 불합리성을 쓴 글을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올려준다. 또한, 현재 제도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단체(민우회)에 서명을 받은 것을 보낸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들에게 제도개선을 독촉하는 글 등을 보낸다.

3. 실천

한국 여성 민우회에서 현재 펼치고 있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 서명운동 중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며, 우리학교 학생 및 선생님과 학부모 총 571명의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몇몇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홍보 글을 올렸으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의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 ① 한국 여성 민우회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 ② 홍보글 올리기
- ③ 2002년 대통령 후보 6인에게 올린 글
- ④ 한국 여성 민우회 오프라인 서명운동 참여

4. 평가 및 반성

우리는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반대하기 위해 학교 안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다. 그렇게 서명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그러나 활동을 펼치던 중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께서 이 운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생리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면세로 인해 비워진 세금의 자리는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채울 것이냐고, 생리대는 생필품이 아닌 사치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힐책하셨다. 또한 다른 선생님께서는 면도기 부가가치세 면제 운동은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단순히 서명운동을 받고 있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이문제가 불합리한 부가가치세를 없애기 위한 운동이 아닌, 점점 남성 대 여성의 감정 대립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 남성 및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서 좀 더 너그러운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미국의 한 여성 운동가는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월경은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생리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국립월경불순 연구소를 세우고 연구비를 지원하며 의사들은 심장마비보다 생리통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 점이 매우 많다. 그 문제는 이렇게 작은 생리대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부터 호주제도가까지 걸쳐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우리의 작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실천이 이 사회에 자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한다.

대전 시내버스서비스개선 활동

대전 성모 여자고등학교
강세라, 구자은, 김고운, 김창숙, 백지선, 유은미, 이인애

1. 시내버스의 문제

고등학생이 되어 통학을 할 때에 시내버스를 타는 등 시내버스의 사용이 부쩍 늘었다. 비단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시내버스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신호위반, 난폭운전, 거기다 11월 1일부터 실시되었던 요금인상까지. 우리는 이러한 시내버스의 불편사항을 문제로 삼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문제 해결 방안

대전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학생들의 경우 현재 운행되는 버스 체제에 대한 불만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혼자서 속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불만 신고 센터 같은 곳에 알려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되면 버스회사나 버스 운전자 조합 같은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실천 내용

먼저 대전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촉구를 위해 서명 운동을 해보았다. 그리고 ○○ 홈페이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버스의 문제점과 요구 사항을 올려보았다. 버스 노동연합 홈페이지의 관리자에게 우리의 불만사항을 적은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한 우리의 불만 사항이나 피해 사례들을 조사했다. 우리가 한 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대전 시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고 우리의 불만 사항을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활동을 했다.

① 서명운동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 조원 6명이 2명씩 3조로 나누어 중앙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며, 한 조당 50명분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 1조: 대전역과 그 근처의 거리. 서명 58명분
- 2조: 문화의 거리와 근처 버스 정류장. 서명 60명분
- 3조: 도청과 지하상가. 서명 59명분

그리고 25명분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설문지 한 장은 1~4반에 돌려서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에 관심을

② ○○ 홈페이지에 글 올리기

- ① 버스 난폭 운전을 금할 것.
- ② 버스 배차시간을 정해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할 것.
- ③ 버스 기사들은 손님들께 친절하게 대할 것.
- ④ 버스 안 불편사항 신고 전화번호 및 안내원을 제대로 배치해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것.

[illegible]

4. 활동을 마치고

어떤 것을 주제로 삼아야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사회 참여활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너무 별개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7차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재량활동이라는 수업시간에 조금 익숙해졌을 즈음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할 수 있는 이런 수업방식을 체험하였다. '사회'라 하면 왠지 어른들만의 세계 같은 느낌이 우리의 생각을 죄었었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까운 부분의 문제부터 지적해 보기로 했다. 버스문제, 이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대전 시내버스에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와 대전시청, 여러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의견을 종합하여 글도 올리고 서명운동도 하였다. 학교에서 편하게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좀 더 보편적인 의견을 모으기 위해 대전역 부근으로 나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쑥스러웠던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해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서명운동을 하면서 응원해주신 여러 시민들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 다른 시민들의 외면이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를 더욱 더 춥게 만들었다. 많지 않은 분들의 서명이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었고 보이지 않는 응원군이었다.

시간과 참여도 문제에 있어 조원들과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러한 사회 참여활동들은 나중에 우리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사회참여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활동이 좀더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을 바라면서 이 보고서를 마친다.

성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대전 성모 여자 고등학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동아리 "갬"
권김선의, 박정 호주, 이김가영, 이송 경미, 이임 보배

1. 호주제,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인 한 여성과 남성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평등한 결혼생활을 원한다. 그러나 이 부부의 소박한 바람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직도 호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호주제에서 호주(戶主)는 말 그대로 집의 주인을 말한다. 한 가족 내에서 주인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호주라는 자격은 부부 중에 남편에게 할당된다. 그렇다면 여성은? 결혼한 여성은 친정집에서 호적을 파들고 가서 남편의 호적에 옮겨 들어가야 한다.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성은 남편 성을 당연히 따라야 하며, 시집의 제례 때는 며느리가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한다. 시간이 흘러 아까 그 신혼부부가 어느덧 성인 된 딸과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결혼해서 두 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었다. 이 경우 이 집의 호주는 누가 될까? 호주가 집주인을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실세를 가진 사람이 호주가 되어야 옹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 호주는 두 살짜리 손자가 된다. 호주승계 순서가 '남편·아들·손자·딸·차·어머니·며느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머니가 된 여성은 두 살짜리 손자보다도 더 낮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는 여성에게 '시집가서 시집에 뼈 묻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평등한 결혼생활의 꿈은 호주제 때문에 평생 이루어질 수 없다. 호주제는 이렇게 평등한 가족의 삶을 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따져 보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것들 중에 성차별적인 문화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 태어나면서 어느 누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성을 물려받는다.
- 가끔 가족들 간에도 “역시 여자는 ~해서 안돼.”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 부엌일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 여자들의 의무인 줄 안다.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가 바깥일을 하기를 원하면서도 집안일까지 잘해주기를 원한다.
- 남여공학일 경우 남학생들의 번호를 앞에, 여학생들의 번호는 뒤에 둔다. 자연히 출석을 부르거나 할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 뒤에 놓이는 꼴이다.
- 몇몇 학교는 남학생에게는 기술을 가르치고, 여학생에게는 가정을 가르친다.

- 학교 이름도 남학교는 ○○ 중학교·고등학교로 표기하는 반면, 여학교는 ○○ '여자'중학교·고등학교로 표기한다.
 - 대다수의 기업에서 여성들의 고용과 승진이 제한되어 있다.
 - 1년간 3만 명에 이르는 여아가 뱃속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낙태된다.
 - 셋째 이상의 출생성비를 보면 남아 출생률이 여아 출생률보다 월등히 높다. 이것은 아직도 남아 골라 낳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위의 사례들을 왜 호주제와 관련지어 말하는가는 이런 성차별의 원흉이 호주제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남성이 주도권을 잡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다.
- 여성의 사회권한척도가 1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하는(94년 UN 발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들 밝힘'을 앓고 있는 나라의 여고생으로서 "깡"이 여성의 권리 찾기를 위해 호주제 폐지를 적극 지지한다.

2.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① 여성의 난자는 어디로 갔나

2세는 짝짓기를 통하여 절반의 유전자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남성의 성세포인 정자와 여성의 성세포인 난자가 결합하여 탄생한다. 수컷의 유전자 염색체 $2n$ 중 절반인 n 을 가지고 있는 정자와 암컷의 유전자 염색체 $2n$ 중 절반인 n 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난자가 만나야 비로소 $n+n=2n$ 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빠의 절반의 씨앗과 엄마의 절반의 씨앗이 만나아가가 태어난다.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은 부도덕한 것이다. 남성만이 씨앗을 생산하므로 남자들이 대를 이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성(姓)을 따르게 하고 남자의 조상에게만 차례를 지내야 한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등한 두 개의 씨앗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호주제는 아빠의 씨앗만 강조하고 부계혈통만을 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성(姓)은 어느 누구의 의지도 반영되지 않고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이혼 여성이 자식을 데리고 재혼할 경우,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성이 다르다면 그 자식은 자라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또한 반쪽의 씨앗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킨다.

② 호주제,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일본이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이다. 그 호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굳어져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켜왔으나 일본에서는 이미 1947년 호주제를 폐지했다.

③ 손자보다 지위 낮은 할머니

앞에서 말했듯 호주승계 순위를 살펴보면 '남편·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아

들과 손자의 나이와 출생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종지도'(어려서는 아버지를, 커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섬기라는 말), '칠거지악'(아들을 못 낳으면, 부모에게 공손치 못하면, 질투를 하면, 나쁜 병에 걸리면 등의 조건으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시집가면 눈 가리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막고 3년', '젊어 죽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나, 정절을 잃는 것은 지극히 큰 일이다.(주자, [군사록]), '무릇 여자는 하품을 하지 말며, 큰 소리로 웃거나 말하지 말며, 눈을 크게 뜨지 말며, 다리를 뻗지 말며.(이퇴계, [계녀서]), '여자에게 글을 가르치면 폐해가 무궁하리라.(이퇴계, [규중요람]) 등의 철저한 남성사회 속에 수백 년 간 종속되어 온 한국 여성이다. 그런데 현대 법에서 호주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평등이라는 개념까지 뭉개고 있다. 여성에게 '삼종지도' 가 아닌,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를 섬기라는 새로운 '사종지도' 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호주제. 이러한 호주제를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3.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요즘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상명세의 표기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가족별 편제와 개인별 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갸"은 개인별 편제가 채택되길 바란다. 가족별 편제를 한다면 또다시 가족에서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인 가족이나 한 부모 가족, 재혼 가족, 동성애 가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다시 재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은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가족별 편제를 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 편제로 가족사를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들도 좀 더 편하게 호적을 정리할 수 있고, 호주제를 하면서 나타났던 남녀차별의 내용을 비롯한 그 외의 모든 문제점을 점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식의 성(姓)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의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방식이 아닌 부부가 서로 상의 하에 자식의 성을 붙일 수 있도록 하거나, 부모의 성을 모두 표기하는 방법 등(이 경우 딸은 어머니의 어머니 성을, 아들은 아버지의 아버지 성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후손들의 성이 계속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가(家)의 자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친가 조상의 제사만 지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조상이라는 의미는 어머니도 반쪽의 씨앗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볼 때 4대가지만 올라가도 조상이라는 의미는 무색해진다. 따라서 '성(姓)'이라는 의미도 무색해진다. 그런데 굳이 성(姓)을 따져 내가 '어는 조상의 몇대 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우리들의 움직임

① 서명활동

"갸"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교내에서 서명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43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고, 우리는 243명의 서명을 모아 11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앞으로 보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모여고 1학년 6반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학교, 직장 등에서의 성 차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1년간 3만 명에 달하는 여아 낙태 등 남성 위주의 사고관의 바탕이 되는 호주제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세 살짜리 손자가 우리 집 주인이라니?!

호주제에서 '호주(戶主)'란 한 가정의 주인을 뜻하며, 호주가 죽으면 1개월 내로 호주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호주승계 순서를 보면 '남편-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들과 손자의 나이와 출생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법이 가족구성원의 중요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아들이 죽으면 손자의 말을 쫓으라는 새로운 사종지도를 강요하는 호주제, 이것은 현실에도 부적합할뿐더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1항)"의 헌법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 호주제,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입니다.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일본이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입니다. 그 호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굳어져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켜 왔으나, 일본은 이미 1947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여성이 호적 파서 시집가는 세상이 아닌 남녀가 평등하게 결혼할 수 있는 세상, 남성 위주가 아니라 양성 중심이 되는 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니 서명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각 정당 홈페이지에 글 올리기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한나라당의 각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보았다.

5.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기

① 호주제의 부당함을 알게 되면서

호주제.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 여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해 왔는지 알게 되면서 우리가 맨 처음 한 일은 우리의 이름에 엄마의 성(姓)까지 함께 표기한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아빠의 성만 쓰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어느 가문의 어느 과, 몇 대 손임을 아버지, 할아버지께 교육 받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행동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구태여 성을 두 글자로 만들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

러나 내 몸을 만든 씨앗의 반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가부장적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엄마 성을 같이 쓰는 일은 나에게 대한 인정이고,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② 호주제의 부당함을 알리자

우리 동아리 일원이 모두 여고생이고 서명 참가자 243명의 대다수도 여고생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호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서명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호주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아쉽고, 앞으로 호주제의 부당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겠다.

③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사회 변화에 맞추어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와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관습, 태도 등이 변해야 한다.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해 호주제를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여남 평등 사회, 나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n개의 성이 모두 평등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이 어떤 방식이든 차별을 유도한다면 우리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3. 소통 영역

→ 3-1 천사와 악마게임

→ 1) 교육목적

- 찬반토론과 역할게임을 통해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
- 준법의식과 참여의식을 통해 민주시민의 바른 자세와 토론 문화를 형성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40분
- ② 준비물 - 시나리오, 보충자료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도입	모둠 편성 및 프로그램 개요 설명	5 분
전개	상황설명 및 역할 부여	5 분
	게임 진행 및 종결 후 토론	20 분
마무리	참고자료를 통한 피드백	10 분
		총 40 분

→ (3) 진행순서

- ① 참가자들에게 교통규칙에 대한 평소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위를 환기시킨 후 다음의 상황 예시를 설명한다.

» 상황예시

친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80Km로 주행하다가 사람을 치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사고 이후 구속되어 있는 친구를 변호사가 당신에게 찾아와 친구가 중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친구가 제한속도인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역할게임을 해볼 거라고 말한다.

② 전체 참가자를 3인 1조의 모둠으로 묶고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붙어 앉도록 한다.

③ 임의로 역할을 나눈다. 가운데에 앉은 참가자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역할을 맡는데 그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판결자라고 명명한다. 판결자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천사역할을, 왼쪽에 앉은 사람은 악마역할을 맡는다.

④ 천사와 악마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역할에 대한 명확한 주지를 위해 천사들은 자신의 역할설명을 큰 목소리로 읽고, 그 후 악마들도 자신들의 역할설명을 큰 소리로 읽는다.

가. 천사역할 :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칙대로 해야지. 아무리 친구가 소중한데도 원칙을 저버릴 순 없어!"

나. 악마역할 : "목격자도 없는데 어때. 친한 친구가 중형을 받으면 곤란하지. 그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당연히 증언해 주어야지!"

<tip>

위에 제시된 상황에서 외에 주어진 설정은 없다. 즉, 천사와 악마가 판결자를 설득하기 위해 임의로 각색할 수 있다.

⑤ 참가자들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설득력을 키우기 위해 천사는 천사대로 모이고 악마대로 모여 전략회의 할 수 있게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

⑥ 이때 진행자는 판결자들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배제하고 천사와 악마가 하는 얘기만 듣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라고 말한다. 판결자들과 선서를 한다. "나는 선입견을 버리고 판결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선입견 NO! 편견 NO!"를 외친다.

⑦ 진행자는 설정한 토론의 주제상황의 요점을 짚어준다.

(친한 친구의 차에 동승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80Km로 주행했다, 사람을 치었다, 목격자는 없었다, 변호사는 위증을 요구하고 있다 등)

⑧ 게임규칙을 말해준다. 천사와 악마는 판결자를 사이에 두고 의자를 틀어 서로 마주보게 한다.

가. 천사와 악마는 판결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한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야기하다가 판결자의 고개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면 말하는걸 멈춰야한다. 때문에 판결자는 천사와 악마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로 토론은 할 수 없고, 판결자에게 질문 할 수도 없다.

나. 게임의 재미를 위해 판결자는 이야기를 듣다가도 어깨에 손이 올라가면 상대방을 보고 30초간 얘기를 들어준다. 즉,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게임 동안 천사악마 각각 1번씩의 찬스만 사용이 가능하다.

- ⑨ 시간이 완료되면 게임을 멈춘다. 시간활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참가자들을 위해 얼마 전에 도입된 배심원제도를 들며 최후변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천사와 악마에게 각각 30초간의 시간을 제공한다.

〈tip〉

게임완료 후 배심원제도를 언급하며 재판관련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 이냐고 질문한다. 진행자는 가망 없는 상황 속에서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최후의 변론을 통해 배심원을 설득하는 장면이라고 얘기 한 후, 시간을 제공한다. 최후의 변론을 통해 천사와 악마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갖고 판결자를 설득할 수도 있다.

- ⑩ 시간이 완료되면 게임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은 판결자는 천사와 악마의 손을 각각 잡는다. 하나, 둘, 셋 하면 승자의 손을 높이 들어준다.
- ⑪ 승패가 정해지고 나면, 진행자는 판결자 역할을 했던 참석자들에게 결정의 이유를 묻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간다.
- ⑫ 게임을 마친 후에는 교육자들이 체험했던 가치갈등 상황에 대한 feedback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처럼 아직 도덕성이나 사회화가 완속되지 않은 경우, 게임 이후 전체 참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예시자료 준비(통계나 여론조사 결과 등)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를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3) 교육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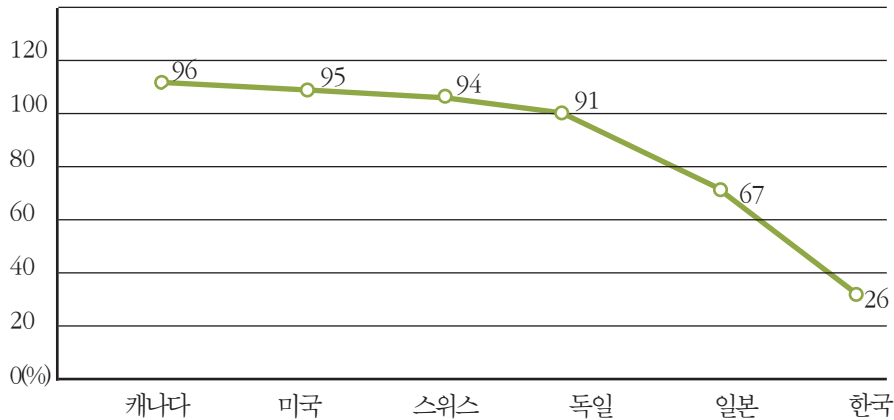
- 역할게임의 중요한 요소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의사표현을 높일 수 있으며 나와 다른 입장을 경험하여 서로 다름과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배려심을 키울 수 있다.

→참고자료

- ① 같은 상황에 대한 국가별 선택 및 준법실태조사
- ② 국제 투명성·부패지수

→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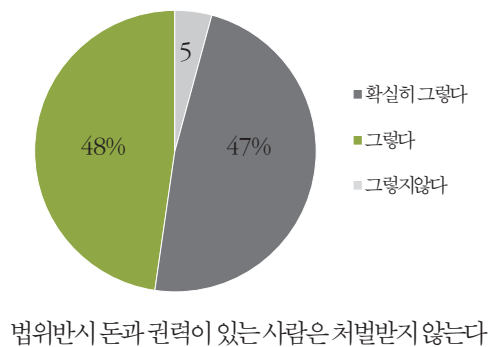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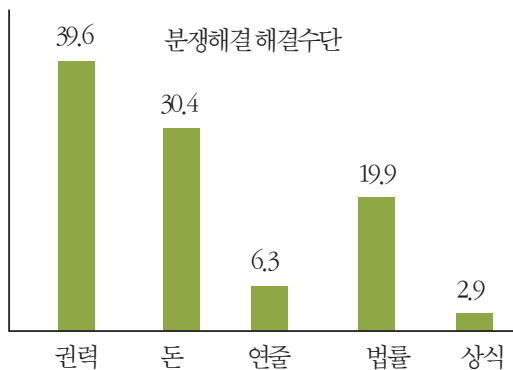
같은 상황에 대한 국가별 조사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국가별로 조사해본 결과 캐나다, 미국, 스위스, 독일 국민의 90% 이상, 일본국민의 67%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한데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지 26%만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준법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1년에 국민의 준법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6% 분쟁의 중요한 해결수단으로 권력, 돈, 연줄을 들었다. 또한 95%는 범위반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참고자료 2

국제 투명성 ·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각 나라의 투명성·부패지수를 발표에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CPI)는 5.5을 기록 OECD국가의 하위권인 39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투명성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민소득은 25% 상승하고, 교역은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제투명성 · 부패지수(CPI)

단계	주요 활동	소요 시간
1	뉴질랜드	9.4
2	덴마크	9.3
3	스웨덴, 싱가포르	9.2
5	스위스	9.0
17	일본, 영국	7.7
39	대한민국	5.5
	브루나이	5.5
	오만	5.5

위의 예시자료들은 결국 우리사회가 법과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기보다는 인정, 또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돈, 권력이 앞서는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에서도 자질 있는 후보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기보다는 자질 없는 후보가 지역주의, 연고, 학연에 편승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후보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 대변자로서 국민과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 1인당 2만 불 소득 시대의 진입, 사회정의와 생존권 수호,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형성 그리고 신뢰받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법과 원칙이 지배되는 사회가 될 때 진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 3-2 포토 스탠딩(Photo standing)

→ 1) 교육목적

-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합의과정을 도출한다.
- 토론과정을 통해 그룹의 일체성 및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생각들이 도출되게 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60분
- ② 준비물 - 광고사진, 참고자료

→ (2) 교육구성

단 계	주 요 활 동	
도 입	모둠 편성 및 개요 설명	10 분
전 개	화보선정 및 그룹토의	20 분
	그룹별 발표 및 정리	15 분
마무리	게임 종결 및 토론	15 분
		총 60 분

→ (3) 진행순서

- ① 전체 참석자를 4~6명의 모둠으로 나눈다.
- ② 진행자는 준비한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가자에게 제시하고, 그 자료를 보고 '선거' 나 '정치' 와 연관되어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 ③ 준비한 화보를 책상 위나 바닥에 펼쳐놓고 각 그룹별로 하나의 화보를 선택하여 광고물의 사진 이나 문구를 통해서 선거나 정치의 개념, 의미,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보라고 한다. 유의 할 점은 그룹의 전체가 합의를 통해 같이 화보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룹의 일체성 및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Tip〉

준비한 자료와 주제가 연관되지 않아도 관련성을 찾아 어거지를 부리는 게임이다. 진행자는 참여자들이 광고사진에 나타난 일차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끔 유도한다.

- ④ 그룹토론을 시작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각 그룹의 대표가 선택한 화보를 가지고 나와서 선거나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때 발표자의 설명이 너무 장황해지지 않도록 발표시간을 2~3분 정도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 ⑤ 전체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한 후, 준비한 예시자료를 통해 선거나 정치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 3) 교육성과

-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사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상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 이러한 과정은 개인간의 또는 집단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해나갈 때 도움이 된다.

→ 참고자료 1

독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임기	선거권	피선거권	의석수	선거구제	투표방식	의석배분방식
한국	4년 (단원제)	만 20세	만 25세	총 의석수 : 273석 · 지역구 : 227석 · 비례대표 : 46석	소선거구제	1인 1표	비교다수대표제
독일	4년 (하원)	만 18세	만 18세	총 의석수 : 603(2003년) · 지역구 : 299석 · 비례대표 : 299석 (초과의석 5석)	소선거구제	1인 2표	비교다수대표제
	없음(상원)	-	-	60인	-	임명제	주에 할당된 의석

위에 제시한 자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독일의 선거제도를 임기,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구수, 선거구, 투표방식, 의석배분방식으로 비교한 자료이다

I 선거의 개념과 기능

1. 선거의 개념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 정책결정 참여행위
- 정치적 통합의 중요한 방식
-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2. 선거의 기능

- 정치적 충원기능 : 정책결정자 선출
- 시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기능
- 정부권력의 정당화 기능
- 정치적 통합의 상징적 기능

위의 자료는 선거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위에 제시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참가자들이 화보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진행자는 상황에 따라 후술하는 선거제도 OX퀴즈에 해답으로,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3 신호등 토론법



1) 교육목적

- 주제에 대한 찬반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찬성과 반대에 입장에 대해서 정제된 토론을 유지한다.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40분 내외
- ② 준비물 - 참가자수 만큼의 빨강, 초록, 노랑 종이 카드
- 학습주제에 적합한 질문사항(찬반의견으로 나눌수록 좋다)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개요 설명, 학습 동기 유발	5 분
전개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성향 스티커 붙이기	5 분
	이유 발표하기	10 분
	자가 진단 테스트 및 확인	20 분
	결과 비교 및 확인하기	5 분
	보충 설명하기	10 분
마무리	평가 및 정리	5 분
		총 60 분

→ (3) 진행순서

- ①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신호등 토론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명확한 의사표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 ② 참가자 모두에게 빨강색, 녹색의 종이크드를 한 조씩 배부한다.
- ③ 이후 진행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참가자 자신의 의견이 찬성일 경우에는 초록색을 들어

보이고, 반대일 경우에는 빨강색의 카드를 들어 보이고, 판단이 서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노란색의 카드를 들어 보이도록 참가자에게 설명한다.

- ④ 진행자는 수업목적에 적합하도록 미리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참가자에게 질문을 한다.
- ⑤ 질문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의견을 표시하면 진행자는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사람을 균형 있게 지목하여 질문을 던진다. (예 : 찬성한다는 초록색 카드를 들고 있는 참가자에게 "학생은 찬성한다는 초록색 카드를 들고 있는데 찬성하는 이유를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 ⑥ 특히 선거제도의 이해에 대한 OX퀴즈의 경우, 질문에 대해 2인, 4인 1조 또는 전체를 2그룹으로 나누어 답하게 함으로써 게임의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맞춘 학생을 "선거제도 OX 퀴즈장원" 으로 추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⑦ 진행자는 질문이 틀렸다고 거수한 학생에게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지 사이사이에 물어봄으로써 OX퀴즈의 참여도 및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

〈Tip〉

- 참가자들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그룹별로 진행하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 진행자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 토론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쪽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 진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단지 토론을 정리해주는 역할정도만 할 수 있다.

➔ 3) 교육성과

-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줄 아는 자세를 기울 수 있다. .
- 찬반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자세가 키워진다.

➔ 참고자료 1

● 주의할 점과 어려운 점

- "잘 모르겠다" 거나 중립적인 노란색 카드를 들고 있는 참가자의 의견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

고, 모든 참가자에게 골고루 의견 발표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교사가 토론주제에 대한 결론이나 답이 '이것이다' 라고 확정을 짓지 말아야 한다.
- 질문은 쟁점이 있는 질문이 좋겠으나 호·불호의 단순한 참가자의 의견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 학습목표에 적합한 질문을 선정하는 작업이 어렵고, 진행자가 토론을 이끄는 기술이 필요하다.

● 질문 예

-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야 하나요?
-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공천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
- 신행정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
-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도를 허용해야 하나요?
-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합니까?
- 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까?
- 청소년들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의견은? 등등



3-4 그룹토론



1) 교육목적

- 주어진 문제에 대한 과제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분명한 주장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현안 정치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정립한다.
- 발표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훈련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150분
- ② 준비물 - 역할카드와 해당자료
- 타이머, 종, 관찰기록서, VTR / 칠판 혹은 차트, 평가서, 펜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프로그램 설명, 모둠 편성, 과제선정, 토크쇼 출연자 등 역할결정	20 분
전개	소그룹토론: 각 정당의 대변인, 정치학자, 헌법학자, 진행자, 청중 등 사회 참여방안 논의 및 실천	30 분
	토크쇼 (중간에 10분 휴식)	50 분
마무리	토크쇼 평가토론 및 평가서 작성	50 분
		총 150 분

→ (3) 진행순서

- ① 5~6명의 모둠을 구성하고, 사회자, 청와대 대변자, 한나라당 대변자, 헌법전문가, 정치학 교수의 역할을 맡을 각각의 모둠을 정한다. 구성된 조의 수에 따라 토크쇼의 출연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인원은 사회자 포함하여 5~6명 정도가 적당하다.
- ② 각 모둠에 역할카드와 자료를 나누어 준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이 자료를 직접 준비해 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
- ③ 10분간 자료를 읽고 주장이나 쟁점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석·요약한다.
 - 가. 중요한 개념 찾기
 - 나. 개념의 연관성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기
 - 다. 그림을 요약하여 문장을 기술하기
 - 라. 앞에서 요약한 것과 비교하여 주장이나 쟁점을 다시 기술하기
- ④ 토크쇼에서 주장할 논쟁의 요점을 토론하여 작성하고, 근거 자료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그리고 모둠을 대표하여 토크쇼에 나갈 사람을 정한다.

- 주의사항

가. 자료의 난이도를 참가자의 수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한다.

나. 토론에 나갈 사람을 모둠별 토론 초기에 선정하게 되면 남은 구성원들은 소극적이 되기 쉽다. 또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므로 '역할'을 맡을 사람은 반드시 자료가 다 준비된 후에 정하게 한다.

⑤ 의자를 배치하고, 대표자들은 자리에 앉는다. 방청객에게 관찰기록서를 나누어 준다. 사회자가 각 출연자를 소개한다.(소개 자료는 모둠별 토론에서 준비하며, 가능하다면 진행과정을 VTR로 촬영하는 것이 나중에 보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⑥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출연자들은 준비한 내용을 주장 혹은 발표한다.

- 토크쇼 진행의 예

가. 인사 및 주제소개(2분)

나. 출연자 소개 및 인사말(3분)

다. 출연자의 소견발표(출연자 1명당 3분)

라. 휴식(10분)

마. 출연자의 질문과 대답(출연자 1명당 2분)

바. 방청객의 질문(5분)

사. 사회자의 맺음말(결론이 아닌, 문제제기나 호기심 자극으로 맺음)

- 유의사항 : 타이머를 준비하여 시간을 지키게 한다.

⑦ 청중은 토크쇼가 진행되는 동안 소그룹에서 준비한 질문을 하거나 사전에 분배된 관찰기록서를 작성한다.

⑧ 다시 모둠별로 앉아 준비작업과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⑨ 개선할 점과 바람직한 토론 자세에 대해 각 1분정도의 발표내용으로 정리한다.

⑩ 모둠별로 대표자 1명이 2분간 발표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질문 및 토론을 한다.

⑪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토론자세에 대하여 정리하고, 관찰기록서를 제출하게 한다.

⑫ 평가서를 작성한다.

→ 3) 교육성과

- 그룹 토론은 분명한 주장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정립하고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 참고자료 1

역할카드와 해당자료

가-1. 사회자용 역할카드

역할	주요 활동
과제	주어진 자료를 읽고 토크쇼를 구성하고 진행할 준비를 하세요. 다음은 참고로 하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르게 진행해도 됩니다.
참고	토크쇼 진행 - 인사 및 주제 소개 : 2분 - 출연자 소개 및 인사말 : 3분 - 각 출연자 소견발표 : 각 3분 (총 15분) - 휴식 10분 - 출연자 질문과 대답 : 각 2분 (총 10분) - 방청객 질문 : 5분 - 사회자의 맺음말 (결론을 맺지 말고 문제제기나 호기심자극으로)

가-2. 사회자용 참고자료

[사설 1] 대통령-의원 任期 맞추기 改憲 논의할 만하다

[조선일보 2005.12.07 22:52:45]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6일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심포지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단축해 2008년 2월 1일까지로 하고 다음 대선과 총선을 2007년 11월에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같은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개헌에 대해 대선후보의 동의를 얻으려면 정부 체제는 대통령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해 대선은 예정대로 치르고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두 의원의 제안은 구체적인 내용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5년 週期주기 대선과 4년 주기 총선이 엇갈려 돌아가는 상황을 더는 방지할 수 없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대선 1년 전 또는 1년 후 총선이 치러질 때에는 정권의 중간 심판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2년에 걸쳐 큰 선거를 치르느라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헌법에 규정돼 있어 임기를 어느 한쪽으로 맞추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일단 개헌논의에 착수하면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자체를 내각제 또는 의원집정부제로 바꾸자든지,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해 영토조항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얼마 앞둔 상황에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나 심각

한 국론분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영토조항 개정 문제까지 꺼내다 보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것인지, 반대로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늘릴 것인지,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경우 현행 單任단임제를 重任중임제로 고칠 것인지, 대선과 총선은 동시에 치를 것인지, 총선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으로 대통령 임기 절반 시점에 치를 것인지 등 임기 조정 문제 하나만으로도 복잡한 논의가 요구된다. 만일 이번에 개헌을 정말 할 생각이라면 다른 문제들은 일단 접어둔 채 임기 문제 하나만을 고치자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5년 주기 대선과 4년 주기 총선이 거의 겹치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를 양보하지 않고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20년마다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사설 2] 개헌, 언제 논의할 지 얘기해 볼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 2005.02.15 18:01 44]

개헌 논의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적기(適期)'라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개헌준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구조에서 개헌 논의는 상시(常時) 대기상태다.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의 문제일 뿐, 어느 시점엔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정치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인 장기독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1980년대 말은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이후 우리는 이 헌법으로 네 차례 대선을 치르며 정권을 바꿔왔다. 더 이상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상황이 된 반면, 5년 단임제에 내재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우선 단임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지 않는 '무(無)책임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치 주체와 국민 여론 간의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은 5년간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끈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오기(傲氣) 정치'니 하는 말이 나온 것도 단임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바 크다.

또 5년 주기 대선과 4년 주기 총선, 지방선거가 서로 엇갈려 돌아가면서 '선거 없는 해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정권은 선거 때마다 모든 국정자원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래서 비롯된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개헌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일단 물꼬가 터지면 권력구조뿐 아니라 남북관계 규정과 같은 보다 민감한 문제들도 함께 쟁점화된다. 자칫 통제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경제 살리기에 국가적 에너지 집중시켜야 할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언젠가는 불가피하다면, 이제 그 논의 시점에 대해서만큼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5년 단임제를 바꿔 다른 선거주기와 맞추려면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 중 어느 한쪽이 자기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데,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은 두 선거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다. 만일 개헌을 하려 한다면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好機)인 것은 분명하다.

나.1. 열린우리당 대변인용 역할카드

역할	열린우리당 대변인 (이름: 나열러)
과 제	주어진 자료를 읽고 3분간 발표할 소견과 주장의 근거를 설득할 자료를 만드세요. 또 다른 출연자에게 할 질문을 2개, 다른 출연자, 청중으로부터 받을 질문을 2개를 예상하여 그 답변을 준비하세요.

나.2. 열린우리당 대변인용 참고자료

[기사] 개헌논의 점점 틀 갖춰간다. 민병두 의원 '로드맵' 제시, 조일현 의원 연구모임 결성도

[한겨레, 편집 2005.03.06(일) 19:01]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이 차츰 틀을 갖춰가고 있다. 개헌논의에 착수해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내놓는 의원도 있고 개헌 연구를 위한 의원모임도 결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의 '기초연구단계'와 내년 하반기에서 2007년 상반기로 이어지는 '개정·협상 단계'로 분리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권이 직접 개헌논의를 진행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각계가 참여하는 '헌법 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적인 연구에 전념케 하고,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 일정'을 확정하고 범국민적 기구인 '헌법 개정 연구위원회' 및 '헌법 개정 연구 기초소위'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하자는 의견이다. 또 2단계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2007년 2월까지 국회 의결을 이끌어내고 3월 국민투표로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민의원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개헌 일정을 역산해볼 때 지금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올해는 정치권이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 등록한 의원 연구모임인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도 개헌논의와 관련해 눈길을 모은다. 이 모임엔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의장과 문희상·유시민·이광재 의원이 참여했고, 한나라당에선 김용갑·김재원·김형오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밖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급 의원 14명이 준회원으로 등록했다. 이 모임은 오는 6월께 창립총회를 열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당내에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엔 박진·전재희·주호영 의원 등 8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매주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고 있다.

[기사] 개헌, '左派的진로수정' 우려

[미래한국신문, 12월 8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또 다른 지적은 정략적 개헌론에 대한 우려이다. 우선 열린우리당 내 개헌론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비롯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논의를 2006년 경 시작, 2007년 경 마무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열린 정책연구원은 2월2일 이사회를 통해 개헌론을 새해기본연구과제로 확정했고, 기획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일 노대통령의 개헌론을 구체화한 2단계 개헌로드맵을 공개 제안했다. 2단계 개헌로드맵은 1단계인 2006년 상반기까지 범국민적기구인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및 '헌법개정연구기초소위'를 구성,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개발하며, 2단계인 2007년 상반기까지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 같은 해 3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다.1. 한나라당 대변인용 역할카드

역할	한나라당 대변인 (이름: 한최고)
과 제	주어진 자료를 읽고 3분간 발표할 소견과 주장의 근거를 설득할 자료를 만드세요. 또 다른 출연자에게 할 질문을 2개, 다른 출연자, 청중으로부터 받을 질문을 2개를 예상하여 그 답변을 준비하세요.

다.2. 한나라당 대변인용 참고자료

[기사] 한나라당도 개헌논의 확산

[미래한국신문, 12월 8일]

개헌론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지난 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적 소신인 개헌을 당론수렴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당내 여의도 연구소 역시 개헌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왔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달 27일 '4월 중 개헌논의 시작'이라는 일정을 제시했고, 김덕룡 의원은 지난 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 정치개혁의 좋은 기회"라며 개헌론을 진척시켜나가자고 제의했다. 김 의원의 제의에 대해 이튿날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6년 하반기가 개헌론을 구체화하기에 적당하다며 공식 답변했다.

개헌논의는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열우당 조일현 의원 등 12명의 여야의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가 국회에 정식 등록한 데 이어, 지난 7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 8명의 당내 의원들이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을 만들었다.

개헌론, 5년단임제 '무책임성' 비판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는 4년중임대통령제, 4년중임정*부통령제 등 4년중임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5년단임제가 과거 장기집권에 따른 대통령의 독점적·독단적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헌정현실에서 대통령의 무책임성(無責任性)을 낳았다는 비난 때문이다.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임제는 정책형성·집행의 조급성과 단발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낳고, 특히 5년단임제는 조기레임덕으로 인한 여야의 무한정쟁을 부추겨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밖에도 정·부통령제도입을 통한 지역감정해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의 연계 등이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들이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것과 별도로 한나라당 내 영남권 의원들이나 여당 중진의원들은 내각제를 내심 바라고 있다.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지역분할구도를 전제로 한 권력분점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에게 내각제는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개헌 같은 국민적 욕구 없어

그러나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개헌론을 부추기는 양상을 띠고 있어 개헌론이 정권채창출을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지금의 개헌론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조사기관 및 조사행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와 과거 직선제 개헌 같은 국민적 욕구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달 17~18일 ANR에 의뢰해 성인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4년중임제개헌론에 대해서는 찬성(42.0%)이 반대(25.8%)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지난 달 20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과 관련,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유지(36.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통령4년중임제(27.1%), 의원집정부제(19.1%), 내각제(8.2%)의 순이었다.

이와 달리 SBS가 지난 달 22일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방향에 대해 대통령4년중임제가 가장 많았지만, 권력구조변경에 대한 반대가 48.5%로서 찬성 45.1%보다 조금 많았다. 특히 이 반대수치는 1년 전에 비해 23.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나라정책원장 김광동 박사는 "현재 거론되는 개헌론은 정치가들이 헌법의 지엽적*기술적 부분을 가지고 자

신의 정치입지확대를 위해 제기하는 정략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아닌 정략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식의 개헌론에 국민들이 휘둘릴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라-1. 헌법 전문가용 역할카드

역할	헌법 전문가 (이름: 법대로)
과제	주어진 자료를 읽고 3분간 발표할 소견과 주장의 근거를 설득할 자료를 만드세요. 또 다른 출연자에게 할 질문을 2개, 다른 출연자, 청중으로부터 받을 질문을 2개를 예상하여 그 답변을 준비하세요.

라-2. 헌법 전문가용 참고자료

[기사] 헌법전문가 4명중 3명 “개헌 땀 4년중임제 지지”

[동아일보, 입력 2005년 6월 22일]

국회 개헌연구 모임이 발족하는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 4명 중 3명꼴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공법학회(회장 양건·梁建)가 다음 달 1일 예정된 ‘헌법 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앞두고 학회 회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공법학회는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 중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51%(응답자 151명 중 77명)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73명)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형태에 대해 공법학자의 76%(응답자 141명 중 107명)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32명)에 불과했다.

[공법학회 개헌관련 설문] 부통령제 찬성 69% ...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개정된 이래 1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모두 9차례 개정됐는데 현행 9차 개정 헌법은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長壽)’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헌법전문가의 과반수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공법학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법학회는 1956년 창립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헌법 관련 학회다.

과거의 개헌 논의와 다른 점은 논의의 초점이 정권의 정당성이나 기본권 보장 등이 아니라 정부의 효

울성과 리더십에 있다는 점이다.

▽ 개헌의 필요성과 이유 =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의 학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 지지자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 민주화 문민화 등 국내 정치 환경의 변화(60%) △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21%) △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10%) 등을 꼽았다.

대통령의 임기 형태는 개헌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현행 헌법대로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팽팽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

개헌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공법학자들은 4분의 3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공법학회 양건(梁建·한양대 법대 교수) 회장은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위험성 등 때문에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많지만 일단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조항은 유지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규정 중 남북문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 진보적인 학자와 정치인들은 이 조항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돼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삭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다만 34%는 삭제에는 반대하면서도 동일 전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법학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해 7월 1일부터 이틀간 전북대에서 열리는 개헌 관련 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토론할 계획이다.

[시원개헌,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정종섭 서울대교수·헌법학]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개헌에 관한 의견이 간헐적으로 돌출하던 것이 올해 들어선 일부 국회의원들의 헌법공부 모임이 만들어지고, 학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개헌사를 돌아보면,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개정이 정치세력 간의 정략적 거래나 집권자의 권력 의지에 의하여 행해진 적이 적지 않았다. 그런 만큼 과연 개헌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차분히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옳다. 또 헌법개정 발의권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공부하고 개헌 논의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태도도 옳다. 이런 것은 국민 주권에 합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개헌이 정치권의 음모나 권력자의 술수에 이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 이어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여 한국의 민주화를 완성시켜가는 경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헌을 놓고 나오는 발언이나 의도를 보면, 정치권은 대통령제·분권형 이원정부제·내각책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으며,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국가비전을 담거나 선진한국을 만들려는 전망을 구체화하는 틀로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혹시나 또 개헌을 집권세력의 국면전환 수단이나 정치권의 선거전술로 이용하지나 않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부마다 민주화나 개혁이니 하고 외쳐왔지만, 대통령선거라는 한판 승부에서 이긴 자가 권력을 모두 가지는 '승자독식(勝者獨食)'의 구조를 즐기며 지역을 바탕으로 한 패거리정치로 국가를 멍들게 했다. 그리고 지역간·계층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권력적 부정과 부패로 몰락한 것은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는 무엇보다 권력적 대통령제와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의 구조, 그리고 승자의 안하무인적 국정농단에서 비롯됐다. 개헌에서 권력구조가 고려된다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정치적 평화를 이루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과연 이러한 권력구조와 정부시스템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적실성이 있는 연구와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나아가는 현대 글로벌 민주주의의 흐름에 비추어 우리 헌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어떤 것이 과연 '개헌'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행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는 '헌법 실현'의 문제인지를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만으로 개헌의 나팔을 불고 국민을 선동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또다시 정치권의 정략에 이용될 위험이 크다. 이런 점에서는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개헌보다 1987년 민주화의 상징인 현행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입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개헌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

내년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고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세력과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야당세력의 치열한 대결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과연 개헌 논의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전개될 것인지 우려된다. 진정 개헌을 논의한다면 국민의 공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먼저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마련한 다음, 차차기정부에서 이를 실현하도록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다. 차기정부의 출범을 염두에 둔 작금의 개헌 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급함과 망용이 또다시 개헌사의 실패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1. 정치학자용 역할카드

역할	정치학자 (이름 : 저유식)
과 제	주어진 자료를 읽고 3분간 발표할 소견과 주장의 근거를 설득할 자료를 만드세요. 또 다른 출연자에게 할 질문을 2개, 다른 출연자, 청중으로부터 받을 질문을 2개를 예상하여 그 답변을 준비하세요.

마-2. 헌법 전문가용 참고자료

[기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유력시 정부통령제는 논란의 소지 있어

[홍진표 / 2005-04-06 18:40]

◆ 내각제 또는 분권형 개헌

노대통령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대표가 내각제 또는 분권형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국회 의석분포상 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내각제등의 개헌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면한 대권을 향해 뛰고 있는 주자들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거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변화에 대해 선호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특히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지방선거이후는 이명박시장과 손학규지사가 신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계기로 대권레이스가 점화되는 시점이다. 당연히 이즈음에 여권의 정동영장관과 김근태장관도 당에 복귀하여 레이스를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대권주자군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들의 의사에 반한 각당의 개헌구상이 수렴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대통령 중임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여야간에 특별한 유불리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권주자들 또한 중임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적극적인 찬성이 예상된다. 국민여론은 조사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찬반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국민투표에서 무난하게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단임제로 인한 대통령의 책임성의 부재에 대해 국민들도 경험상 그 결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헌의 상당한 명분 또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기존 5년을 1년 줄이는 4년이 국회의원임기와도 일치되고 가장 무난하다는 점에서 국회내에서 쉽게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 정부통령제

정부통령제 도입은 지역, 세대, 색깔 등을 놓고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을 대폭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대권주자들은 물론 정치권 전반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그동안 각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경선결과와 불복사태(사전탈당을 포함)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 다만 각당에 따라 이해득실의 계산서가 다르게 나올 여지가 존재한다. 예컨대 한나라당은 정부통령제가 상대적 프리미엄이 있는 여당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대의 상대를 고르기 쉬울 수 있고, 호남보다는 결속력이 약한 영남기반을 잠식당할 우려도 할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부통령제 도입에 대해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논란이 예상

된다.

만약 정부통령제가 도입되고 특히 부통령에게 실제적 권한이 부여되면, 기왕의 대선보다는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극적인 요소가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 충청권(신당) 등 지역기반 정치세력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으며, 민노당의 대권후보가 합의하에 탈당하여 여당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연대의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고건변수도 커질 수 밖에 없다.

◆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현실적으로 여당과 민노당의 연대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과 여당은 결선투표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나라당이 완강히 반대하면 도입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선거시기 조정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조정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 틀림없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그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여론은 모아질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릴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아마도 유예기간을 두어 차차기부터 적용하지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 질서있는 논의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공식화되면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헌법전반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손을 대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을 비롯하여 각종 이익집단들도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한번 열리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다.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심지어 '개헌망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개헌논의가 소모적으로 흐르고 그 사회적비용이 지나치게 되면, 국민여론이 개헌반대론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개헌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얼마나 질서 있게 논의를 끌어가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개헌논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인다.

바-1. 청와대 대변인용 역할카드

역할	청와대 대변인 (이름: 오픈)
과 제	주어진 자료를 읽고 3분간 발표할 소견과 주장의 근거를 설득할 자료를 만드세요. 또 다른 출연자에게 할 질문을 2개, 다른 출연자, 청중으로부터 받을 질문을 2개를 예상하여 그 답변을 준비하세요.

바-2. 청와대 대변인용 참고자료

[기사]盧대통령 “선거구제 개편” 재촉구

[서울경제 2005.12.07 19:20:42]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논의가 수면 위에 부상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제도 개편론을 거론했다. 정기국회 때까지는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공헌한 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르고 있는 7일 정치이슈를 꺼내 들었다. 특히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직접 언급해 정치권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불을 당길 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5회 지역방송의 날을 맞아 지역방송과 지난 2일 녹화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소선거구는 1등 하는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구도가 살아가기 아주 좋은 정치구도"라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이외에 (지역구도타파의)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장'과 관련해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선거제도를 그래도 2등까지 당선되게 한다거나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공평하기도 할 뿐더러 사표가 없어지고 지역적으로도 균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중대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거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개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중에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아주 많다"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또 하나의 고민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하면 양당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하면 반드시 다당제가 나온다"며 "지금까지 탄핵총선 말고는 전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였으며 그래서 집권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특정 선거제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노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일련적인 제도이고 특별히 가중치를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편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앞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을 외국의 사례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의 의미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재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 참고자료2

관찰기록서

역할	헌법 전문가 (이름: 법대로)
일반적인 사항 - 시간적 구성 - 구조 - 참여의 범위 - 대화분위기	
조의 대표 출연자 - 주요 주장 - 언어구사력 - 설명하는 능력 - 융통성 - 설득력	
진행자 - 통제력 - 조정능력 - 표현력 - 통찰력 - 융통성	
기 타	

→ 참고자료3

바람직한 토론자세

1. 토론자의 자세와 능력

- ① 사전준비가 잘되어있어야 한다.
 - 가. 토론의 목적을 갈파해야 한다.
 - 나. 토론 방식을 미리 알아둔다.
 - 다. 토론의 구도를 확인해야한다.
 - 라. 토론의 구성을 이해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의 토론을 잘 경청해야 한다.
- ③ 메시지를 핵심 있게 전달해야한다.
- ④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한다.
- ⑤ 정확한 말로 이야기해야 한다.
- ⑥ 훌륭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 가. 자신의 의견을 조정한다.
 - 나. 대안을 모색한다.
 - 다. 최종 메시지를 준비한다.

2. 사회자의 역할과 능력

- ① 토론에 대한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 ② 주제소개, 진행방법 소개, 토론자 소개를 잘 해야 한다.
- ③ 쟁점제시, 논쟁정리를 잘 해야 한다.
- ④ 논의를 압축하고, 결론을 제시해야한다.
- ⑤ 주제정리, 결어,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출처 : 이연택, 『토론의 기술』, pp. 29-177.

→ 참고자료 4

평가서

1. 제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시간은?

(1) 소그룹토론 (2) "토크쇼" (3) 평가토론 (4) 마지막 전체발표

2. 바람직한 토론문화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① 사전준비가 잘되어있어야 한다.
- ② 상대방의 토론을 잘 경청해야 한다.
- ③ 메시지를 핵심있게 전달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 ⑤ 정확한 말로 이야기해야 한다.
- ⑥ 훌륭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3. 제시된 자료는 적당했는가?

.....

.....

.....

4. 상기 프로그램 가운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

.....

.....

5. 내각제 도입에 대해 한마디?

.....

.....

.....

→ 3-5 찬반토론(Pro&Contra debate)

→ 1) 교육목적

- 입론-논증-질의응답-논박-최종입장정리의 과정을 거치며 찬성과 반대의 토론방법을 익힌다.
- 주제에 대한 특성을 알고 거기에 따른 개발과 보전에 관한 나의 주장을 말할 수 있다.
- 간척사업의 장단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140분
- ② 준비물 - 토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
 - 학습과제 관련 사회문제 조사(간척사업의 영향)
 - 관련사이트, 신문기사, 찬반 시사 프로그램 및 신문자료

→ (2) 교육구성

단계		소요시간
도 입	학습 동기 유발	20 분
전 개	토론 주제 선정	20 분
	토론 준비: 모둠편성, 대표 선정 등	15 분
	토론 활동	30 분
	토론 결과 발표	20 분
평가 및 정리	자기평가와 모둠 평가	15 분
	발견학습	20 분
		총 140 분

→ (3) 진행순서

- ① 학습목표 확인
 - 가. 학습동기유발 화면

- 아름다운 갯벌의 모습(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 간척사업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나. 학습목표 확인

- 활발한 간척 사업과 지역 및 환경의 변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② 토론 주제 선정

가. 빔 프로젝트를 통해 간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제시

나. 간척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 간척사업을 해서 좋은 점
- 간척사업을 했을 때의 악영향

다. 애니메이션 자료를 통한 간척 사업에 대한 논란 제시

-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의견 분석하기
- 각각의 입장에 따른 주장의 근거 분석하기

라. 토론 주제의 선정

- 학습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고,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토론 주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시한다.
- 간척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③ 토론 준비

가. 간척 사업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 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 토론하기 전에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발표하게 한다.

나. 찬성과 반대하는 2개의 모둠을 편성 한다.

다. 각 모둠별로 찬반에 따른 합리적 의견 수렴이 가능한 대표를 선정한다.

라. 토론 약속

- 전체 토론시간 : 30분
- 사회자가 한 토론자에게 제시하는 시간
- 의견을 이야기 할 때,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본다.
- 조 구성원의 발언 시간제한

마.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모둠이 마주보고 앉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④ 토론 활동

가. 입론-논증-질의응답-논박-최종입장정리의 과정을 거치며 토론에 임한다.

나. 제시된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조의 리더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선택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토론 결과 발표

- 가. 토론을 마치고 토론 후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학습지에 기재한다.
- 나. 자기의 생각과 토론 과정에서의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 다. 찬성과 반대의 결과 확인
- 라. 토론 학습지 작성 후 게시판에 올리기
- 마. 간척 사업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

⑥ 토론 평가

- 가. 자기 평가와 조의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 나. 게시판에 게시된 토론 평가지를 참고하여 주장, 근거, 문제해결의 방법에 대한 평가를 함.
- 다. 서로 엇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한 주장을 잘 펼치는가를 평가한다.
- 라. 사회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가를 평가한다.

단 계	평가 기준
주장 세우기	내용의 구조가 짜임새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발표태도가 좋은가?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말하였는가?
질문 및 반박하기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논점을 잘 정리하여 질문하고 있는가? 비판의 근거는 타당한가?
정리단계	처음보다 나아진 점이 있는가? 상대의 비판을 잘 살피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⑦ 발전학습 : 두 가지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한다.

- 간척지개발에 찬성이 지배적일 때 간척 사업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 생각해보기
- 간척지개발에 대한 반대가 지배적일 때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보기
- 발전학습지

주 제	간척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둠명		일시	
모 둠			
구성원			
발 전	1. 간척 사업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		
학습주제	2. 갯벌의 활용 및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용			
참고자료			

⑧ 대안적 활동

가.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이나 멀티미디어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인터넷 연결이 안 될 경우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한다.

나. 교사는 관련된 신문이나 인터넷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활용한다.

다. 토론학습지는 인쇄하여 학습자가 활용하도록 한다.

라. 면(面)대면 토론 후에 차후에 게시판에 결과를 올린다.

→ 3) 교육성과

-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설득함은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배운다.
- 이를 통해 주제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참고자료 1

학습자 평가지 1

다음은 잡지에서 옮겨 놓은 글이다. 아래 글을 보고 개발과 환경보호를 두고 어느 생각이 옳은지 간단히 적어보자.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새만금 갯벌

우리나라 갯벌은 생물종이 풍부하고 생산력도 높아 유럽의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남동부 해안, 아마존강 하구 유역 등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지역에 든다. 동감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된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을 보존할 것이냐 농지로 개발 할 것이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최근 중대한 환경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탄생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 결과 작년 5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민관 공동 조사단이 구성돼 올해 4월까지 활동했으며 지난 8월 하순 총리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조사단 내부의 충분한 합의 없이 작성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일대에 국내 최대규모인 4만2천ha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간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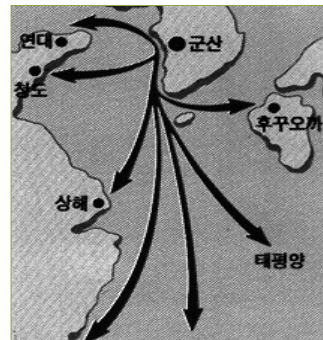
21세기 한국 산업을 주도하게 될 이 개발 계획은, 2004년까지 1조3천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32.8km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전북 김제군 넓이에 해당하는 4만1백ha의 국토를 확장하는 대역사이다. 전북 변산반도와 고군산열도, 그리고 군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토개발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98년까지 대략 33.8km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외곽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어 외곽 시설에 8천2백억 원을, 내부 개발에 4천8백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췌 〉

→ 참고자료 2

학습자 평가지 2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간척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시된 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찾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간척사업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간척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척사업에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먼저 간척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토지확보, 수자원확보, 지역 개발의 세 범주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산성, 오염물질 정화기능, 생물의 보고, 자연재해 조절, 경관보전, 철새의 중간기착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간척사업과 함께 간척지에는 큰 규모의 담수호가 만들어진다. 담수호를 만드는 이유는 간척지를 농경지나 공업 용지로 이용할 경우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간척지에 조성되는 담수호는 하천의 가장 하류 부분에 해당되므로 오염도가 높은 하천의 물이 유입되기 쉬워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호수의 물이 오염되기 쉽다. 경기도의 시화지구에 조성된 시화호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바다로 방류할 경우 해수의 오염은 물론, 주변 양식장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대호지구에 조성된 호수 주변의 경지를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이용하고 호수 부근에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공급되는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는 한,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아직도 간척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며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자. <국립공원관리공단 - <http://www.npa.or.kr>>

→ 참고자료 3

학습자 평가지 3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입장(환경운동연합)

첫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물의 공급처가 바로 갯벌 등의 습지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물 부족이라는 현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둘째, 습지는 지구상에서 생물의 종류의 다양성이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생산력도 가장 뛰어나며 뿐만 아니라 정화기능의 가치, 태풍과 홍수조절 등의 가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해마다 봄, 가을로 우리나라를 찾아 갯벌생물을 먹이로 하고 있는 도요·물떼새들 중 50%인 10만 마리 이상이 새만금 갯벌을 거쳐 가고 있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땅이자, 우리 국토의 일부인 것이다.

셋째, 해양생태계의 파괴, 수산자원의 고갈을 가져온다. 갯벌은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완충지대일 뿐 아니라 바다 전체 생태계의 30%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갯벌 파괴는 곧바로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어장의 감소로 이어진다. 일례로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간척공사의 경우 현재 공정을 30%에 못 미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류시간이 2시간이상 늦어지고 있으며, 서해안 일대는 갯벌 매립으로 인해 89년 조개류의 생산량이 96년에 84.5%가 감소되었으며, 이후 새만금 외곽공사가 마무리되면 패류, 해조류 갯지렁이 등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 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넷째,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육상생태계도 파괴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라고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방조제 공사와 매립지(쌓아 올린 땅) 조성을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토석(흙과 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85년 이후부터 추진된 20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진 산이 150개, 88,691,736m³의 토석이 채취되었다. 게다가 토석 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산까지 서슴없이 파괴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다섯째,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이 사라지게 된다. 바다를 의지하여 어업에 종사해 오던 어민들은 간척사업으로 단기적인 보상에 따른 부를 얻을 수 있으나 후손에게 이어줄 어업의 장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은 낯선 생활공간을 찾아 이동하게 되며 도시 빈민가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입장(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첫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여의도 땅의 140배에 해당되는 국토가 생기게 되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용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첨단 산업기지 및 중국과의 무역기지를 만드는데 유리하고 신 국제 무역항을 만들어 10만톤급 선박의 자유 입출항 가능한 서해안 중심 항구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 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한해 10억톤의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제 휴양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가진 곳이며 관광자원 및 자연학습공간 제공하게 된다. 간척지는 주위 환경이 쾌적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많아 관광자원과 자연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훌륭한 자연경관을 갖춘 고군산군도가 육지와 연결되고 주변의 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등과 연계되어 쾌적한 관광자원으로 국민에게 편안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첨단 농업 시범단지를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수준에 불과하다. FAO에서는 2000년대 세계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사업은 28,300ha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여 9만4천 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토지의 절대면적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원활한 토지수급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농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새만금 간척지의 완공된 모습〉



→ 참고자료 4

간척지란?

간석지·호소·하천 등지를 방조제로 막고 물을 뺀 뒤 그곳을 농경지나 주택지 및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호소나 하천연안은 대체로 바닷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낮은 지대를 택한다. 간석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큰 하천의 하구 부분으로 하구언(河口堰) 및 배수갑문을 축조하고 이곳의 물을 농업·공업용수로 이용하며, 연안의 간석지는 농경지로 만들고 그 목은 복개하여 주택이나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다른 하나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넓은 간석지를 방조제로 막고 이용하는 경우로 대부분의 간척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간석지는 만이나 도서 등으로 가로막힌 해안에 잘 발달하며, 만조 시에는 수면 밑에 잠기고 간조 시에는 위로 올라오는 해안퇴적지형이므로 표면이 평평하여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파랑(波浪)이 잔잔하여 갯벌이 쌓인다. 퇴적물질은 주로 점토·실트·모래 등이다. 남한의 경우 간석지가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은 경기만과 다도해 지방이다. 이곳은 한강·임진강·예성강·금강·만경강·동진강 등 큰 하천이 유입하므로 홍수 시 더 많은 토사가 쌓인다. 이때의 퇴적물은 대체로 위로 성장하고 바다 쪽으로는 넓게 퍼진다. 또한 갯벌이 높아져 만조 시에만 바닷물이 겨우 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곳에 염생식물(鹽生植物)인 나문재·툇툇마디·해송나물 등이 식생하면서 염생습지(salt marsh)로 변한다. 예로부터 이런 땅을 방조제로 막아 농경지로 이용해왔다. 방조제를 막으면 그 바깥쪽은 갯벌이 집중적으로 쌓여 습지가 발달한 뒤 땅이 생기고, 다시 새로운 방조제가 쌓여지면 간석지가 확장되고 구 방조제는 농경지 가운데 유물로 남게 된다. 조차가 큰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대체로 염생습지가 넓게 분포했었으나, 19세기 이후 현대적인 토목기술과 함께 대규모의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염생습지는 급격히 줄었다. 특히 중장비 시설을 갖춘 오늘날은 염생식물이 없는 간석지도 농경지나 염전으로 이용한다.

간척지로 조성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은 넓은 갯벌이 잘 이루어진 곳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방조제 앞면에는 연안사주나 섬이 많이 있을 경우이다. 반면 간척대상으로 가장 불리한 곳은 퇴적물질이 대부분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져 있을 뿐, 갯벌은 조금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굴·바지락 등의 양식장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간척대상으로는 불리하다. 간척지로 선정할 때의 유의점은 무엇보다 제방의 위치가 안전해야 하며, 제방 거리가 짧으면서 면적이 비교적 넓은 지역, 제방구축에 사용하는 돌·흙 등의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배수처리가 잘 될 수 있는 곳(간만의 차가 클수록 배수는 좋음)이다. 또한 농경지로서 토양이 알맞은 곳, 담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대규모 간척사업은 네덜란드의 조이데르 해, 미국의 동남부, 소련의 습지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해안·남해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남해안 일대는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간척사업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간척사업이 실시된 시기는 네덜란드의 경우 10세기부터이고, 일본의 경우는 1284년이며, 우리나라는 1248년(고려 고종 25)에 실시되어 일본보다 앞선다. 처음에는 군량미의 확보를 목적으로 강화도를 간척하였다. 1923년 조선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 민간인인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방 후인 1948~50년에는 수리간척의 재건 및 정비시기였으며, 1951~61년까지는 강화지구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A) 등의 지원을 받아 수리사업을 하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본격적인 간척사업의 활성화는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 수리간척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1962년 건설부 산하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62~66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건설부에서 동양 최대의 동진강 수리간척사업, 자산간척사업 등을 비롯하여 1965년 미연, 1966년 서산B지구를 각각 착공하여 이때까지 준공된 것은 10개 지구 618.25km²였다. 1967~71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기본정책인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에 따라 자본의 잠식, 투자의 수익률 등이 낮다는 이유로 신규 대간척사업이 일단 중단되어 제1차 기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상태였다. 1972~81년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는 공업개발과 수출증대에 역점을 둬으로써 신규 간척지개발은 억제되고, 이미 착공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미완공 간척사업의 마무리계획으로 1974년 정부는 민간간척 총 391.83km²를 조사하여 이중 142.33km²를 국유화하였다. 1978년에는 삼교천지구에 삼교천 방조제와 송산 방조제가 준공되고, 1979년에는 동진강의 계화도지구 개답공사를, 1980년에는 대호지구 간척지를 착공하여 1985년에 외곽공사를 완공하였다. 1982~86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는 민간기업에 의해 서산 A·B 지구 공사가 착공되어 1988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내부공사가 늦어져 199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간척자원 조사실적을 보면, 1963년 전국 간척 가능면적이 총 2,250km², 1966년 2618.27km², 1972년 2761.82km², 1985년 국토개발연구원(지금의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한 것은 4,415km²로 밝혀졌다. 1945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산미증산계획에 따른 토지개량사업으로 178개 지구에 약 412.19km²를 간척했고 1945~60년까지는 72.46km²로 부진했으나, 1961년 이후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및 농촌근대화 등에 목표를 두고 공유수면매립법 제정·공포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대단위 매립사업을 실시하고 1985년까지 약 402.42km²를 준공했다. 이중 계화도지구는 12.8km²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약 39.68km²를 매립하였으며, 간척지 25km²는 농경지로 조성하고, 오포지구 2.41km²는 개답하여 수물민을 입주시켰다. 삼교천 방조제 A·B지구는 약 26.6km², 영산강 하구둑 간척지개답으로는 약 55km²를 각각 얻었다. 평택지구는 염해의 피해가 가장 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 후 천수답과 수리불안전답이 완전히 없어졌을 뿐 아니라, 잠종지까지 개발되어 수리안전답 184.19km²를 조성했다. 특히 아산만과 남양만 방조제 공사를 하여 대규모 인공 담수호를 만들었고, 아산 방조제에 의해 3.97km², 남양 방조제에 의해 22.85km²를 각각 얻었다. 이런 간척사업의 결과 전체적인 국토면적이 남한의 경우 1960년 9만

8,430km², 1985년 9만 9,140km², 1990년에는 9만 9,263km²로 20년 동안 약 833km²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1991년말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안매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약 9만 9,510km²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간척사업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경관은 간척촌의 형성이다. 간척촌은 농경지개간, 염전개발, 양식·양어장 설치 등에 따라 여러 기능의 촌락이 형성되는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간척지를 개답하여 새로운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한 취락이 보편적이다. 간척촌은 대체로 계획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옥배열이 규칙적이고, 바둑판 모양이다. 1930년대 초 간척사업으로 생긴 김제의 광화면에서는 원래 6가구씩 편성한 반(斑)들을 직선상의 농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것이다. 또한 군산 서쪽 미성읍의 평화·금성·옥성·신창 마을은 당시 일본 민간인에 의한 간척사업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래는 명칭도 일본식이었다. 그 뒤 이루어진 간척촌으로는 1970년에 조성된 계화도 간척지 마을이 가장 크다. 창북·돈지·계화도 내에 약 0.26km²의 택지를 조성하여 1,000동의 조립식 주택을 건설하였다.

→ 참고자료 5

학습종합자료

내용	출처
해안지역변화	http://www.tgedu.net/student/jung_sa/life/chu02.htm
간척개발사례	http://kfem.or.kr/wet/cases/cases.html#name4
서해안고속도로	http://100.empas.com/entry.html/?i=399247&Ad=iyah
세계의 갯벌 보존현황	http://kfem.or.kr/wet/world/world.htm
간척 사업의 문제점	http://tggeo.com/stu4/1stu/sisa/gat2.htm
한국의 갯벌 관리	http://tggeo.com/stu4/1stu/sisa/gat.htm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에듀넷	http://edunet4u.net
간척지의 기능과 역할	http://www.green.co.kr/library/net/6.html
한국의 갯벌(홍재상)	대원사, 1998
간척지의 기능과 역할	http://www.green.co.kr/library/env/net/6.html

→ 3-6 피라미드 토론법(Pyramid Deb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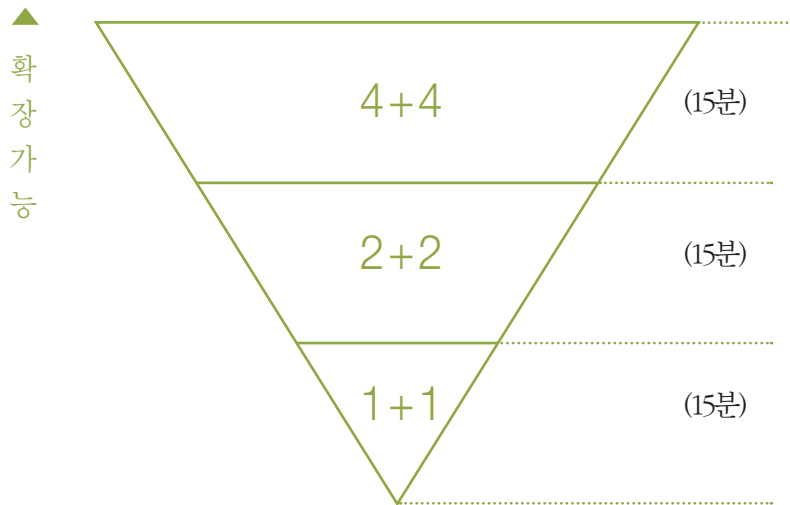
→ 1) 교육목적

-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 주장하고 설득하는 훈련 및 합의를 통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다.
- 시민으로서 역할역할과 바른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80분 내외
- ② 준비물 - 색종이, 매직펜, 전지, 풀, 투명 테이프, 화이트보드와 핀 또는 자석
- ③ 피라미드 토론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역피라미드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먼저 1:1로 상대방과 토론, 토의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이룬 후에 2:2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주장, 설득, 합의과정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개요 설명, 학습 동기 유발	5 분
전개	21C 공무원의 자질에 대해 카드에 적기	5 분
	옆 사람과 짝을 이루고, 카드 줄여가기	10 분
	사람의 수를 확장시키며, 카드 줄여가기	35 분
	최종 2개 모둠의 조별 논의와 토론	20 분
마무리	정리하기	5 분
		총 80 분

→ (3) 진행순서

- ① 먼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21세기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각자 3가지를 카드에 적게 한다. 적는 내용은 하나의 단어(명사)나 짧은 문장으로도 표현한다. 행동원칙이나 명제 등을 확정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 ② 각자 기록한 3가지 21세기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옆에 앉은 사람과 1:1로 짝을 이루게 되면 6장의 카드가 될 것이다.
- ③ 이 중에는 물론 같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달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과 토론과 토의를 통해 이들 6장의 카드를 3장으로 줄이는 작업을 시행하게 한다. 짝꿍에게 자신이 적은 자질을 하나씩 보여주며 왜 자신이 적은 자질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양보와 관찰을 위해 설득과 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tip〉

너무 포괄적인 단어는 안된다. 예를 들어, '전문성' 같은 단어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구체적인 단어로 적게 한다.

카드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토론시 책상이나 의자가 불편하면 옆으로 치우거나 이동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한다.이것은 카드게임이 아니다.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토론한다.

- ④ 이런 과정을 거쳐 2+2, 4+4, 8+8과 같이 확장시켜 가며, 압축하는 카드의 개수를 토론 주제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준다.

⑤ 최종적으로 전체 참가자가 2개 모둠으로 나뉘 질 때까지 토론을 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⑥ 2개 팀의 내용을 놓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조별로 모여 5~10분간에 걸쳐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tip〉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발표자를 정한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하면 조원들이 발표했으면 하는 참가자를 가리킨다.

〈tip〉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토론을 시켜보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토론에 집중하지 않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하거나 대부분 방관자가 되거나 하는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토론 전에 토론할 때 주의할 점이나 토론할 때의 자세 위주로 알려주면서 토론을 잘 하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일반적으로 쓰는 찬반토론, 자유토론은 가장 어려운 토론법인데 학생들을 연습시키지 않고 이러한 토론법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토론의 연습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적힌 카드를 보며 토론함으로써 토론의 핵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참여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배양된다.

위와 같은 게임에는 경청, 설득, 합의, 리더배양 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민주주의 과정이 피라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게임에서 주의할 점은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해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명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응용주제

- 우리학교 임원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예비유권자 선거교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문제점과 개선방안
- 21세기 교사의 자질과 역할
- 21세기 선관위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
- 시민운동가에게 필요한 능력과 역할

→ 3) 교육성과

- 민주주의 기본요소인 시민의 다양한 의사표현, 참여가 증진되며 토론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이 드러나게 된다.

4. 협상 및 정치 영역



4-1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

-최근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 갖기: G20 정상회의



1) 교육목적

- 판도라 상자를 매개로 하여 최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참가자는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자
기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
-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는 규칙을 통해 참가자 전원이 골고루 발언권을 갖고 난상토론으로 흐르지 않
게 한다.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50분 내외
- ② 준비물 - 낱말 카드와 동일한 크기의 빈종이
 - 모듈 수만큼의 색종이 묶음, 풀, 반 전지 크기의 종이
 - 참가자 수만큼의 A4 1/2 크기의 종이
 - 최근 이슈 관련 단신이나 다양한 기사 제목들

→ (2) 교육구성

단 계	주 요 활 동	소 요 시 간
도 입	개요 설명, 학습동기 유발	5 분
전 개	최근 이슈에 대한 단신이나 기사 제목 읽기	10 분
	전개 모듈별 이유 발표하기	10 분
	문서나 동영상으로 최근 이슈에 대한 정보 확인	5 분
	각자 생각이나 궁금증은 A4 1/2 종이에 적어 상자에 담기	5 분
	상자를 옆 모듈과 교환하고 한 종이 당 한 사람씩 코멘트 적기	5 분
	상자를 본래대로 돌려받은 후 답 글 확인하기	5 분
마 무 리	마무리 평가 및 정리	5 분
		총 50 분

→ (3) 진행순서

- ① 전체 참석자를 6~8인의 모둠으로 구성한다. 책상을 모두 붙여서 큰 종이를 펼칠 수 있게 자리를 만든다.
- ② 진행자는 모든 조에 미리 준비해둔 단어 카드와 풀, 반 전지가 담긴 판도라 상자를 나누어 준다.
- ③ 진행자가 '판도라 상자 게임'의 목적과 진행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④ 진행자가 '오늘의 주제'를 말한다.
- ⑤ 모든 참가자는 최근 이슈에 대한 단신이나, 다양한 종류의 기사 제목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
- ⑥ 모든 조원은 큰 종이를 책상에 펼쳐 놓고 상자를 열고 낱말 카드를 꺼내어 펼쳐 놓는다.
- ⑦ 진행자는 옵션 카드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조원은 그 이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낱말 카드나 느낌을 드러낼 수 있는 색종이를, 총 2개를 고른다.
(예 : 낱말 + 낱말, 또는 낱말 + 색종이, 또는 색종이 + 색종이)

<tip>

발언 규칙을 정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 모든 조원들은 순서대로 자신이 선택한 카드를 붙인다.
- 이때 왜 그 카드를 선택했는지 조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
- 카드를 붙이는 사람 이외에 다른 조원들은 모두 발표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미리 준비된 낱말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참가자들이 직접 낱말카드를 쓴 후, 게임 진행도 가능하다.

- ⑧ 진행자는 참가자에게 카드 붙이는 방법과 발언권에 관한 규칙을 설명한다.
- ⑨ 순서대로 한 명씩 자신이 고른 카드를 큰 종이에 붙인다.
- ⑩ 모든 조원들이 카드를 붙이고 나면 자유 토론을 한다.
- ⑪ 진행자는 토론을 정리하고 다른 조가 볼 수 있도록 각 조가 큰 종이를 들어 보이게 한다.
- ⑫ 각 대표가 자기 조의 의견을 발표한다.
- ⑬ 진행자는 최근 이슈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문서자료를 나누어 주거나 동영상 자료를 재생하여 참가자 전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⑭ 진행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A4 1/2장을 나누어 준다.
- ⑮ 모든 참가자는 종이에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궁금증을 2문장으로 적어본다.
 - 각 조는 비어있는 판도라 상자 안에 의견이 적힌 종이를 상자에 다시 담는다.
 - 각 조는 옆 조로 상자를 건네주어 결과적으로 모든 조는 다른 조의 판도라 상자를 갖게 된다.
 - 각 조의 성원들은 새로 받은 상자에서 한 장씩 종이를 꺼내어 그것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답 글로 적는다(1~2문장). 다 쓴 종이는 다시 상자에 담아 원래 조에게 되돌려 준다.
 - 구성원들은 자신의 글을 꺼내서 쓰인 답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tip〉

다음과 같은 주제로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예시) 12월 19일에 있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갖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표현해 보자.

→ 3) 교육성과

-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와 규칙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 4-2 연필게임

→ 1) 교육목적

-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론과 토의 준비단계로서, 참가자들 간의 상호 인사와 자기소개를 통해 전체회의 또는 소규모 집단작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갈등해결을 위한 현재의 마음상태를 파악한 후 갈등중재와 갈등해결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안다.
-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윈-윈(win-win)방식의 갈등해결을 위해 귀와 입, 종국에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배운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40분 내외
- ② 준비물 - 깎지 않은 연필 1자루, 연필깎이, 종이카드 10장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모둠 구성 및 준비물 배부	5 분
전개	협의 단계	10 분
	협상 단계	15 분
마무리	해결책이나 토론 결과의 소개와 정리	10 분
		총 40 분

→ (3) 진행순서

- ① 참여자들을 세 개의 조로 나눈 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참여자 수에 따라 조원 수는 적절하게 조절 가능하다.
- ② 연필게임을 위한 도구로 깎지 않은 연필, 연필 깎이, 여러 장의 메모지(약 10장) 등이 있는데 각 조는 이중에 한 가지씩을 선택할 수 있다.
- ③ 각 조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연필표시가 되어있는 메모지를 기능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주어진 것으로 제한된다.
- ④ 각 조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동의 진행방식을 결정한다. 이후 다른 조와 협상에 들어간다. 이때 끝없이 진행되는 협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행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도록 한다.

〈Tip〉

10장의 메모지를 갖고 게임할 경우, 4장 이상을 갖는 조가 승리하므로, 참여자들이 적절한 작전회의와 협상을 통해 게임에 임하도록 진행자가 유도한다.

공개협상, 개별협상, 전체협상, 비밀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

1차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정시간의 작전회의 후 2차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게임의 재미를 높일 수 있다.

- ⑤ 게임 종료 후, 해결책이나 토론 결과를 소개하고 정리한다.

〈Tip〉

이 게임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의 예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재현(유럽연합, 유고갈등 등), 다국적 협상에 있어서 신뢰와 안보를 만드는 각종 조치들의 의미 또는, 세계무역에 있어서 서로간의 의존성(연필은 원자재를, 연필 깎기는 산업이나 기계 혹은 기술적 Know-how를 그리고 종이는 자본을 의미할 수 있음) 등이 있다.

이 게임은 협상의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어떤 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야 win-win이 될 수 있다. 연필게임은 win-win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임이다. 또한 협상능력을 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 3) 교육성과

- 게임 과정을 통해 서로간에 마음을 열고 조금씩 양보할때 진정으로 공통의 이익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며, 닫힌 마음, 나 혼자만을 이익을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 4-3 터부 토론

→ 1) 교육목적

- 쟁점사안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보다 명확히 하는 연습을 한다.
- 역할게임을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히게 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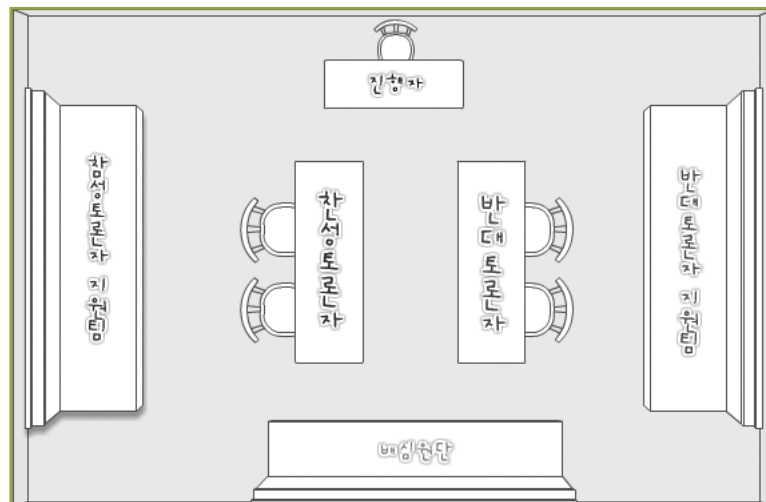
- ① 시간 - 40분 내외
- ② 준비물 - 찬반쟁점에 대한 자료(신문, 잡지, 논문 등)
 - 발언시간을 알리는 종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토론주제 선정, 설명 자료 배부	5 분
전개	터부단어 선정 및 게임 규칙 토의	5 분
	게임 진행	20 분
	배심원 평결	5 분
마무리	피드백	5 분
		총 40 분

→ (3) 진행순서

- ① 진행자는 먼저 참석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개괄적인 찬반양론의 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필요하다면 상황이 자세히 소개된 신문기사나 책을 나누어주고 학습하게 한다.
- ② 아래 그림과 같이 좌석을 배치한 후, 심판관과 배석, 찬성과 반대 발언자 각 2명, 그리고 발언할 논거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보조자(작전 지원팀), 배심원단, 그리고 방청객 등의 역할을 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과 증인을 설정할 수도 있다.



- ③ 중앙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판사역할은 일반적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맡고, 배석 심판은 토론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여부와 발언시간 체크, 그리고 금기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tip〉

참여 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역할을 배정한다.

(3)를 통해 토론에서의 규칙준수와 토론자세 연습이 가능하다.

- ④ 이와 같은 역할 배분은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역할에 거수를 하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이용해도 좋다.
- 가. 발언자격은 찬/반 2인으로 한정, 뒤에 앉는 4명은 작전 지원팀
 - 나. 배심원들은 게임규칙을 제정
 - 다. 발언시간, 총 시간, 대표교체 가능 여부 등 상황에 맞게 변형가능
 - 라. 방청객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도 가능(예 :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
- ⑤ 터부토론의 규칙과 터부단어를 전체가 함께 결정하거나 배심원단에 일임을 할 수도 있다. 토론의 규칙 또한 모두가 함께 결정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배심원들이 정할 수도 있다. 상황과 인원수에 따라 진행자가 판단하여 적절히 조정한다.
- 가. 터부단어 선정 : 러브호텔, 교육, 현행법, 재산권
 - 나. 게임규칙 토의 : 작전시간, 1회 발언시간 1분, 최종변론 3분, 2회 작전타임, 대표교체 가능, 배심원 판결, 방청객 피드백 등
- ⑥ 찬성측과 반대측은 질문이나 변론을 교환하고, 발언자격은 맨 앞에 앉은 두 명만 할 수 있으며, 선수교체는 2번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배심원에게 최후변론을 한다.
- ⑦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시간이 다 경과한 후에 찬성측과 반대측의 발언시간 초과 및 규칙위반횟수, 터부단어 언급횟수 등을 알려주어 배심원들의 판단에 활용되도록 한다.
- 배심원들은 거수나 투표를 통해 토론의 승자를 가린다.
- ⑧ 토론이 끝나면 진행자가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느낀 점을 공유하도록 한다. 만약 참여자들의 수가 많아서 방청석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들의 의견을 듣는다. 방청객과 각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 간의 느낌과 평가를 주고받으며 마무리 feedback을 한다.

→ 3) 교육성과

- 터부단어를 통해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연습과 절제된 토론을 익힘으로써 토론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토론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 토크쇼의 진행요령, 발언 규칙등을 경험하고, 전략적 토론 능력을 고양할 수 있다.

→ 4-4 모의선거 : "기권은 싫어요"

→ 1) 교육목적

- 모의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선거공약을 세울 수 있고, 유권자는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 선거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50분 내외
- ② 준비물 - 시나리오, 역할봉투, 투표용지와 여론조사용지

→ (2) 교육구성

단 계	주 요 활 동	소요시간
도 입	퀴즈를 통해 학습동기 유발	5 분
전 개	역할 설정	10 분
	여론조사	5 분
	상황 제시	10 분
	투표 후 여론조사와 결과 비교 및 피드백	10 분
마무리	정리 및 발표	10 분
		총 50 분

→ (3) 진행순서

- ①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선거관련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퀴즈로는 최근선거의 투표율 같은 간단한 문제가 좋다.
- ② 모의선거를 하기 전에 제시된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당부하는 말과 함께 게임의 규칙을 설명한다.
- ③ 제비뽑기를 통해 후보자A, B와 유권자1부터 유권자9까지 역할을 정한다. 제비가 되는 봉투 안에는 자신의 역할과 선거당일의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적어놓았는데 용지가 두개 들어있는 봉투와 하나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 제비가 두개 들어있는 봉투를 뽑은 사람은 '역할지'라고 쓰여 있는 용지를 먼저 열어보게 하고, '상황지'라고 쓰여 있는 용지는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④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와 여론조사용지를 배부한다.
- ⑤ 유권자들에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상의 시, 푸른시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상황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심각한데 전 시장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농촌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민심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

- ⑥ 후보자A, B에게 선거유세를 하게한다.
- ⑦ 유권자들에게 투표 전에 여론 조사한다.
- ⑧ 유권자 중에 제비 봉투 안에 용지가 두개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지'를 열어보라고 말한다. '상황지' 안에는 확실히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3경우), 보통 투표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2경우),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1경우)이 들어있다.

<tip>

두 번째 용지에 적힌 상황은 어떤 경우여라도 여론조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참여자 수에 따라 상황별 용지수를 조절한다. 이를 통해 투표 후에 설문조사결과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

- ⑨ 투표 후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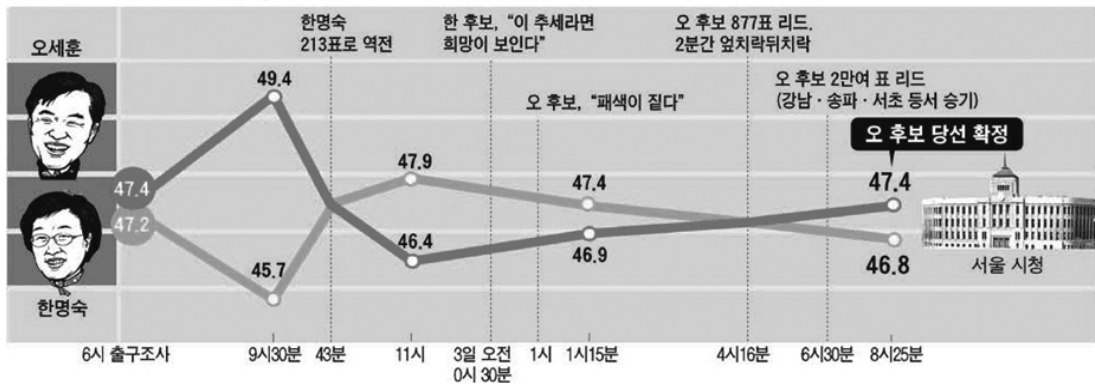
- ⑩ 참여자들에게 모의선거를 마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여 공유한다.
- ⑪ 우리나라의 최근 선거 현황과 투표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모의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무관심의 위험성과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 3) 교육성과

- 학교선거에서의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향후 올바른 유권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 또한 선거과정을 체험하여 선거의 중요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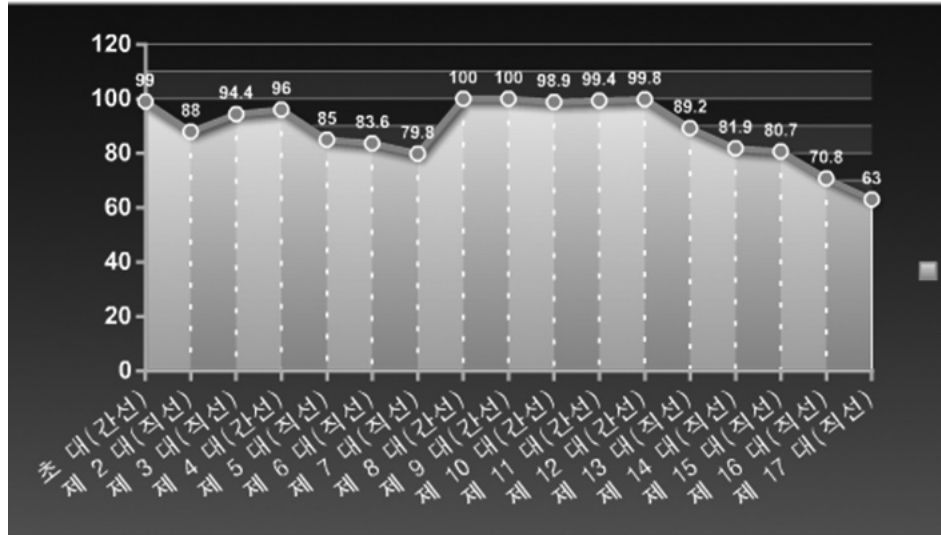
서울시장 개표 '밤샘 레이스' 단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빙의 승부였는데 선거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결과가 드러났다. 보시는 바와같이 출구 조사부터 접전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개표되면서도 여러 번 두 후보의 순위가 바뀌는 등 접전이 이어졌다. 불과 0.8%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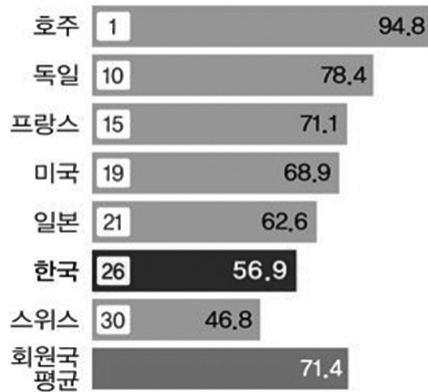
→ 참고자료 2

한국의 역대 선거율



→ 참고자료 3

■ OECD 주요국 투표율 순위 (단위: %, 2000~2009년 평균)



자료: International IDEA, 중앙선관위

→ 4-5 선거시물레이션 : "꼼꼼히 따져보아요"

→ 1) 교육목적

-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 전원이 활발하게 의견 공유가 가능하다.
- 가상투표를 통하여 우리의 투표 자세를 돌아보고 올바른 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50분 내외
- ② 준비물 - 선거후보자 수만큼의 하드보드지와 인쇄물, 종이와 펜, 선거에 관한 기사 및 자료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개요 설명 및 학습 동기 유발	5분
전개	후보자의 선거공약 듣기	10분
	1차 투표 및 결과 확인	5분
	후보자에 대한 자료 획득 및 의견 공유	20분
	2차 투표 및 결과 확인	5분
마무리	평가 및 정리	5분
		총 50분

→ (3) 진행순서

- ① 진행자는 한 조에 조원이 6명 정도가 되게끔 조를 나눈다.
- ②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료나 동영상상을 보여주며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 ③ 투표를 위한 3명의 가상 후보자 사진과 공약을 약 3분간 보여준다.

<tip>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 경력사항 정도에 한정시킨다.

→ 참고자료 1

		
후보자A	후보자B	후보자C
만 62세 이 지역출신 서울의 명문대 졸업 전 푸른도지사	만 45세 이 지역출신 미국 ●●●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대기업 대표이사출신	만 50세 타 지역출신 ●●고등학교 졸업 초선에 도의원 출신
· 전도지사당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시설 유치, 노인 복지회관 건립 등의 공약을 지키지 않음. · 실무 경험이 많음.	· 세금 미납 · 공금 횡령 의혹 · 경제 전문가, 강력한 추진력	· 청렴한 정치인상 수상. · 지방의원당시, 일자리창출과 복지증진 위한 다양한 입법 발의한바 있음.
주요 공약		
· 푸른도 내 전 지역 그린벨트 해제 · 지역 내 대학신입생의 등록금 면제	- 푸른도 내 실업률 0% 만들기 -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의 지사 50곳 유치	- 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정책

- ④ 참여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1차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 ⑤ 각 조별로 실제로 집으로 오는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처럼 만들어진 봉투를 나눠주어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한다.
- ⑥ 다시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⑦ 투표결과를 확인한 후 왜 그렇게 나왔는지 1차 투표결과와 비교하여 알아본다.
- ⑧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참고자료를 활용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권리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3) 교육성과

- 청소년으로서 선거의 중요성과 바른 유권자의 자세를 익힐 수 있다.
- 나아가 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배울 수 있다.

→ 참고자료 2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투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를 위한 참고자료로는 신문과 방송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평 대구대(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대구대 학생과 학부모, 친척 등 시도민 421명을 상대로 ‘6·2지방선거 투표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투표의 주요 기준으로 후보의 소속 정당(2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약(24.9%), 인물 됴됨이(18.3%), 학력 및 경력(1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투표하겠다' 59.3%(242명), '투표하지 않겠다' 18.6%(90명), '모르겠다' 22.2%(89명) 등으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투표 참가자의 54.5%로 가장 높았고, 참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당한 후보가 없어서'

가 투표 불참자의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매일 신문 2010.5.26

"우편물로 뭐가 오긴 했는데 관심이 없어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엔 문자 메시지도 하나 받았고요. 무슨 시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보낸 거였는데... 근데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그날 뽑는다고요?" 고교 2년생과 중학교 2년생 이들을 둔 학부모 김경숙(44)씨는 6·2 지방선거 투표대상 중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주변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육 이슈를 접하곤 했다"며 "막상 중학교에 진학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들게 되더라"고 말했다. "기왕 하는 선거라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뽑히는 게 좋죠. 하지만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차라리 학교에서 아이 편에 후보자 프로필을 한꺼번에 모아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 조선일보 2010-5-24

표심을 드러낸 유권자들은 세대와 지역에 따라 지지후보가 엇갈렸다. 20~40대에선 안희정 후보, 50~60대 장·노년 층에선 박상돈, 박해춘(한나라) 후보 지지자가 많았다. 세종시와 인접한 까닭에 '원안' 고수론자인 안희정·박상돈 후보가 '양강'을 형성한 남부 지역에서도 젊은층은 안 후보를, 장노년층은 박 후보를 선호했다. 25일 공주 계룡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이재홍(81)씨는 "여기는 무조건 3번(신진당)"이라고 했다. 후보자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우린 숫자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라며 "(나이가 드니)벽보를 봐도 이름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했다.

- 한겨레 2010-5-26

→ 4-6 협상기법 : 소가 필요해

→ 1) 교육목적

- 협상은 상대의 요구를 찾는 것이라는 협상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한다.
-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경험한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② 준비물 - 시나리오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도입	협상의 정의 및 유형 설명	5 분
전개	모둠 편성 및 역할 설정	5 분
	협상	5 분
마무리	정리 및 발표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 ① 협상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나, 실생활에서 협상이 요구되는 상황을 질문하여 게임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 ②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후 협상의 정의를 명확히 인식시킨다.

〈tip〉

참고자료2의 협상의 정의만 언급하고, 협상의 유형은 게임이 완료된 후 언급한다.

- ③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두 사람이 한 팀이 되게 나눈다.
- ④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역할을 설정한다.
- ⑤ 한 사람은 강원도의 김씨 역할을, 또 한 사람은 부산의 이씨 역할을 맡는다.
- ⑥ 각 팀들은 자유롭게 앉아서 소를 사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 ⑦ 5분 뒤 협상을 끝내고 결과에 대해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 ⑧ 협상이 안 된 팀은 왜 안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⑨ 참고자료2의 협상의 유형을 언급하며 참여자들과의 feedback을 한다.

〈tip〉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

협상에서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토론이 끝난 후 토론의 유형을 언급함으로써 올바른 협상방법을 알려준다.

- 소협상을 통해 입장과 요구(양과기법)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김씨와 이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다음 나누는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나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서 경쟁적 협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의 찾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는다면 자신의 요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3) 교육성과

- 협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의 공통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상생을 배울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참고자료 1

역할설정

강원도 "나 푸줏간"

정육점을 하는 나는 대전에 사는 "나 소 주인" 씨가 질 좋은 소 5마리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를 사러 갔다. 그런데 "나 소 주인"은 그 사이 부산의 "가방끈 길어"도 소를 사러 한다며 5마리밖에 없으니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한다. 나는 소 값의 85%를 현재 가지고 있다. "가방끈 길어"와 협상을 잘해서 값도 깎고 내게 필요한 소를 꼭 사야 한다.

부산 "가방끈 길어"

소가죽 가방공장을 하고 있는 나는 마침 대전의 "나 소 주인" 씨가 좋은 소 5마리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소 주인" 씨에게 가서 소를 사려고 하니 "나 소 주인"씨는 강원도에서 온 "나 푸줏간" 씨 역시 소를 사려고 하니 두 사람이 알아서 결정해 오라고 한다. 나는 현재 소 값의 60%를 가지고 있고, 소 5마리가 모두 필요하다. "나 푸줏간"과 협상을 잘해서 값도 깎고 내게 필요한 소를 꼭 사야 한다.

→ 참고자료 2

협상의 정의 및 유형

협상이란?

제3자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이해 당사자, 갈등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원하는바(이익, 요구)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벌이는 의견의 교환 또는 행위의 교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협상의 과정이다.

협상의 유형

- 대립적, 경쟁적 협상 :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익, 요구를 최소화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 요구를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
- 절충, 타협형 협상 : 상대와의 좋은 관계유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요구를 동시에 고려(나누어 갖기식 기계적 절충, 타협)
- 협력적 협상 : 상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요구를 함께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창조적, 입체적 대안 마련)

→ 4-7 시사만평(풍자만화)

→ 1) 교육목적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
- 시사만평이 각각의 요소들을 묘사하는 단계에 이어서 상황, 상징, 회화적인 방법, 시사만평의 "언어"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② 준비물 - 시사만평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만평의 정의 및 유형 설명	분
전개	모둠 편성 및 역할 설정	분
	협상	분
마무리	정리 및 발표	분
		총 분

→ (3) 진행순서

수업에서의 시사만평해석은 세 가지 단계 즉 이해, 해석, 적용으로 구분되는 해석학의 고전적인 단계모델에 따른다.

- ① 시사만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 ② 학생들을 소그룹의 모둠으로 나눈다.
- ③ 시사만평을 나눠준다. 학생들에게 시사만평의 주제를 확정하며, 동기를 찾고, 정치 분야의 경계를 정하고 관련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사만평에서 보이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

한다.

〈Tip〉

이 단계가 학생들의 능력에 비해 너무 쉽다고 해도 정확한 설명은, 추후의 오해와 실수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설명의 대상은, 시사만평가가 사용한, 다음과 같은 모든 표현방식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시사만평에서 사용되는 표현방식의 요소

- 글자(단어 그대로의 말?, 기관, 정당표식 등등?)
- 활동가(정치가, 저명인사, 규격화)
- 상징(초상화적인 표식, 생략)
- 그래픽적인 요소(독자의 시선방향, 전망, 확대효과, 단색화, 입체화)
- 색의 상징(대부분의 시사만평은 흑백으로 그려지며 색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교수자는 학생들이 만평가의 생각을 상술하고자 시도하도록 돕는다.

- 그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생각했었나?

⑤ 각 모듈별로 만평에 대한 생각을 모은 후,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⑥ 교수자는 학생들이 시사만평을 그린 사람의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입장뿐 아니라 또한 반대주장을 상대적으로 보기 위해서 “반대읽기”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시사만평은 학습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자료와 관계된 분석을 하도록 암시적으로 지시한다.

◆ 선택

교사가 어떻게 정치시사만평을 접하는가? 다른 신문의 기사와 마찬가지로(Kuhn 2001, 159-170 참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일부러 찾거나 신문을 읽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치학의 목적과 주제에 관한 교수법적인 의식과 지식이 전제된다.

어떤 목적을 갖고 찾을 경우는 실제로 가상적으로 신문이 보관, 기록된 곳에서 찾아야 한다. 정치시사만평의 무한한 출처는 국제적인 시사만평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다. 검색사이트(google.de)에서 "Karikatur+Politik"으로 찾을 경우, 약 21,000개가 "Karikatur +Zensur"일 경우, 약 11,000개의 해당목록이 나온다. 따라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의하는 바를 제한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개개의 시사만평가가 자기 그림들 중 최상의 작품을 묶어서 매년 책으로 편찬하기도 한다(예: Haitzinger 2001). 또한 독일연방정치교육원에서도 시사만평을 제본하여 편찬하였다(예: 독일통일에 관하여).

우수한 시사만평을 모아 놓은 기록집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치학 교사는 자체 수집을 해야 한다. 신문

에서 읽을거리를 가위로 오려두는 것은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 (신문, 인터넷, 교과서, 수업 자료, 전문잡지 등에서) 시사만평을 디지털화하여 학습계획주제에 따라 주제별로 컴퓨터에 저장시킨다. 이렇게 저장해둔 자료들은 OHP로 만들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준비

시사만평관련 훈련 순서에 따르면 한 개의 시사만평에 대하여 세 개 내지는 다섯 개의 함축성 있는 자극을 사전에 명확히 표현해두면 충분하다. 이에 단계별 진행사항의 개요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다른 나머지는 모두, 즉 정치적 연관성 파악, 비평의 여파는 수업중의 대화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항상 해석을 제시하는 근거, 즉 그 자료가 무엇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동시에 내재적인 분석은 시사만평을 읽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데, 이는 너무 서둘러 일치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시사만평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묘사된 인물들(즉 선거권자, 소비자등)과 동일시 할 경우("이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해석의 여지를 더욱 많이 줄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학습경로는 자발적인 반응으로부터 자극을 거쳐 개방된 연상으로(요소와 관련성의 "풀이"), 중심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파악된(그리고 단지 비유적으로만 표현되진 않은) 진술을 포함한 압축으로까지 이어진다.

◆ 평가

파악된 정치적 메시지는, 시험으로 연결될 수업과정에서 하나의 중간 성과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음 단계, 즉 무엇에 대한 시험을 봐야 할지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질문, 즉 지식문제, 이해문제, 또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잠재적인 질문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에 각기 활동을 분담한 집단 또는 개개의 활동에서 문제의 명확화, 더 많은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탐구전략을 준비하게 한다.

시사만평은 그날 화제가 된 정치적 사건을 평한다. 따라서 두개의 글로 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첫째는 그 시사만평에 관계된 기사이며 두 번째는 시사만평과 마찬가지로 언론가의 전문적인 논평이다.

기사는(배경에 관한 기사, 르포, "3면 역사(Seite-drei-Geschichten)" 도 포함) 사건정보를 제공하고 논평은 -시사만평과 같이- 내재적인 정치적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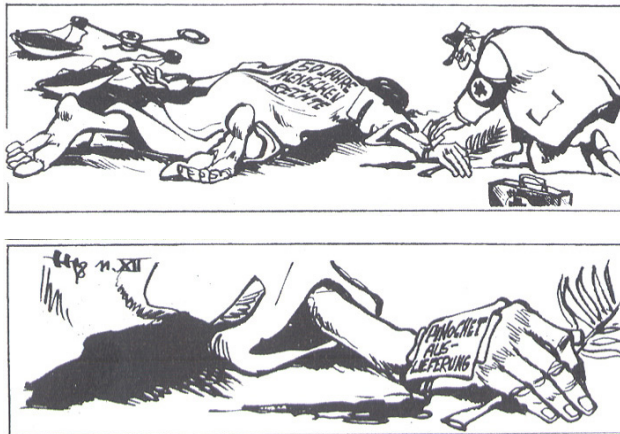
또한 하나의 테마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신문을 비교할 수 있다. 한 특정날의 3개의 신문을 보면 정치적 학습과정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각 신문의 정치적 입장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또한 3개의 텍스트류, 즉 시사만평, 기사, 논평의 특수한 잠재력을 알 수도 있다.

◆ “위로의 작은 반창고” 2) 시사만평에 대한 간단한 분석

하이칭어(Haitzinger)의 시사만평 "위로의 작은 반창고"는 - 1998년 12월 11일 한 지방신문인 바디쉐 차이툰(Badische Zeitung)에 게재되었음 - 피노체트(Pinochet) 사건을 인권 50주년(UN헌장)과 연관시켰다. 의인화된 인권은 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위생병이 드러난 상처에 응급조치를 한다. "위로의 작은 반창고"위에 써있는 "피노체트 인도"라는 글자로, 주장하는 바를 바로 알 수 있다. 인권의 표장(表章), 저울과 평화의 가지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 시사만평의 해석은 자세한 설명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게다가 두 부분으로 나뉘진 것과 이 시사만평가가 그림의 제목으로 의미하는 바가 눈에 뜨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상적으로 그 상징들에 대해 조사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명백해진다. 누가 인권의 모습인가? 법(저울에 의해 상징됨) 또는 그리스도(평화의 가지로 상징됨)? 위생병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그가 무엇을 실현할 수 있는가?

또한 "작은 반창고"라고 한 점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게 된다. 만일 이 만평가의 중심적인 비판과 메시지가 파악되면, 사건과 인권사이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만평가의 입장이나 비평에 반대되는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기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그의 입장을 조사할 수 있다.



(위로의 작은 반창고, 하이칭어(Haitzinger)작, 1998년 12월 11일자 바디쉐 차이툰(Badische Zeitung)

2) 출처 : Kuhn, Hans-Werner: Fünf Unterrichtsstrategien. In: ders.: Urteilsbildung im Politikunterricht. Schwalbach/Ts. 2003, 179면

◆ 시사만평해석: 열 가지 전형적인 실수

1. 너무 많은 자극

우수한 시사만평은 "짐을 많이 실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견해를 한 번에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자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2. 설명 뛰어넘기

첫 째로 필요한 설명 단계가 자주 지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래 "처음 볼 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중심적인 진술을 알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3. 연상의 제한

시사만평의 각각의 요소들을 묘사하는 단계에 이어서 상황, 상징, 회화적인 방법, 시사만평의 "언어"의 해석이 따른다.

이에 학생들에게 제한되지 않은 연상을 하도록 촉구한다면, 교사가 계획할 때 "사전에 생각"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연관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 잠재력은 이용할 만하다. 여기서 후에 검토될 수 있는 "정치적인" 해석을 학습집단(또는 교사)에 의해 표현하도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해석은 학생들의 정치관예로의 귀납적 추론을 여러 번 허용한다. 또한 교사의 자극은 연상된 해석을 "정치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첨예화의 소홀

제한되지 않은 해석의 단계 후에는 집중 단계가 잇따른다. 추상화한 성과는 중심 진술 또는 메시지의 형태로 문자화하여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생각에서는 연상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다룬다. 즉 회화적인 표현을 하나의 진술로 변형함으로써 시사만평의 해석의 종료, 즉 최소한 잠정적인 종료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수업단계에서 그 진술이 검토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런 첨예화작업을 하도록 "강요" 됨으로써, 동의한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도, 그 메시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이는" (기본)동의를 피한다. 개개인이나 집단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계속적인 작업을 위한 성과가 많을 수 있다. 비로소 이러한 공통적인 "개념의 긴장(Anstrengung des Begriffs)" 으로(헤겔) 학습과정에서 동화를 보장한다.

5. 상징의 애매모호성의 과소평가

상징, 일상적인 상황, 정치적 인물들의 상투적이지 않은 연관은 해명을 필요로 한다. "비판적인 웃음"은 설명되어야 한다. 많은 상징들은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지식의 수준, 정치적 경험과 연령에 따라 초상화적인 그림을 인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여기서 자료에 대한 문화적인 인

식(색의 상징, 몸짓, 자세, 태도)이 습득될 수 있다. 비록 상징이 각각 비교적 분명하다 할지라도(독수리가 상징하는 바는..., 시체머리가 상징하는 바는..., 평화의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 독일의 미셸 3)이 상징하는 바는...), 구성된 정치적 연관성에서 전적으로 “여러 의미” 즉 사실, 경고, 비판, 거부, 요구 등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6. 반대모습으로의 왜곡을 이용하지 않는 것

시사만평이 어떤 정치적 사건을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인위적으로 구상된 작품이라면, 그 평가의 한 전략은, 생각의 실험에서 그 표현을 뒤집는 데에 있을 수 있다. 즉 시사만평의 “왜곡된 세계”를 다시 왜곡시키는 것이다. 시사만평이 상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미 작업되었다면, 이러한 방법은 또한 교수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중으로 왜곡하는 것은 단지 개개의 요소나 전체형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시사만평에 포함된 비판을 조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시사만평이 비판 이외에도 “구체적인 이상향”(Ernst Bloch)을 포함한다면, 지나치게 요구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생각실험을 통해 조직적인 비판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으나 이는 시사만평의 “시험”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7. 사고활동 과소평가

훌륭한 시사만평은 독자를 선동한다. 독자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도전을 받는 것이다. 정치적인 사전 정보가 없다면 정치적인 시사만평은 독자들에게 말할 것이 적다. 단지 고립된 상징, 상황 또는 인물들만이 인식되고 비판적으로 표현된 상황은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 또 여학생과 남학생사이의 차이도 있다. 어떤 학생은 바로 알아차리고 다른 학생들은 이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의견이나 사전 지식을 진단하고 또한 학생간의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이중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하나의 시사만평을 취급하는 여러 단계에서의 요구사항은 차별화된다. 기본요소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연상은 창조적인 심사숙고를 격려하고 하나의 중심 메시지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영역별로 정치적인 생각이 축구된다.

이로써 정치수업에서 시사만평을 다루는 것은 신속한 신문읽기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시사만평가의 관점으로 변경되고, 그 비판을 실감 있게 체험하며 그 진술이 검토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하나의 상황이 해명된다.

3)독일의 미셸의 흔적은 훈스뤼크(Hunsrück),푸스텐부르크(스트롬부르크)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한스 미셸 엘리아스 폰 오펜트라우트는 1574년 태어났으며 그의 유년, 청소년 시절을 보낸다. 30년 전쟁 때, 스페인의 영주인 스피놀라가 부른 것처럼, “독일의 미구엘(Aleman Miguel)”은 기병장군(Reitergeneral)으로서 친구들과 적군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그는 그의 특별한 덕과 행동으로 인해 유명해져서 독일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미셸”은 상징적으로 대부분 나이트캡을 쓰고 반바지를 입은 독일사람으로 풍자된다. 16세기 이래로, 이런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독교 군대와 독일인의 수호천사인, 천사장 미카엘에게로 국민을 정치적으로 흔들어 깨우기 위해,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다. 출처: Ein schöner Tag, Band 5f, Hunsrück, Neuwied 2002, 31면.

8.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기

교사들의 틀에 박힌 눈길은 가능한 한 빨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결과에 이르도록 잘못 지도할 수 있다. (교사: "우리가 보기에는...") 수업시간은 항상 시간적으로 빠듯하다. 5분후에 해석결과가 확정된다면 훌륭한 시사만평에서 정치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바가 과소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어긋난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운 바를 피상적으로만 습득하게 된다.

9. 각각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음

한 시사만평을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관련이 있다. 시사만평 자체가 (조용한) 자극으로서, 해석하게 하는데 충분인가? 학생이 (훈련된) 교사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가? 자발적인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은 OHP로 해야 한다. 이로써 단지 수업자료에 대하여 공동으로 집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사만평을 복사하여 나누어준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전체그룹을 혼란스럽게 하는, 웅성거림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도자의 과제는 각 단계, 즉 자세한 묘사, 자유로운 해석 및 종합평가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방법적인 능력은 이러한 단계의 의식적인 구분을 통하여 강화된다. 비록 이러한 단계로부터 교리와 같은 처방이 나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명백한 기본구성은 포함된다. 각 항목에서 이전 단계로 소급되는 것이 필요할 지라도, 그 분명한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추정된 메시지를, 구성요소가 간과되어, 항상 다시 교정하고 상대화시켜야 한다면, 혼돈스러운 결과에만 연연하게 된다.

10. 묘사, 해석과 비판의 구분을 제거

수업계획과 긴밀하게 관련된 실수는 부족한 차별화가능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각 단계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판단도 "임의적인 것으로" 남는다. 비판이나 대안이 명료하게 작업되지 않는다. 수업은 단지 의견, 즉 거리를 두고 책임감이 없으며 무의식적인 일상적인 의견에 머물게 된다. 이에 반해 각 단계를 분석적으로 구분하면 시사만평가의 비판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판단기준을 발달시킬 수 있다.

해석학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시사만평의 취급은 영역별 정치적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위한 구성요소로 남는다.

대안적인 해석모델

여기서 소개된 해석모델의 대안으로 우펜달에 의해 발전된 분석모델(Uppendahl 1978, 23)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는 매체기능연구의 핵심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다(자료 1 참조).

이 해석모델은 소위 러스웰 공식(Lasswell-Formel)을 기초로 한다. 즉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효과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

해석영역	중심질문	확인대상
주체자(Who?)	● 누가 주체자인가? ● 그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 그는 어떤 정당에 가담하는가?	예: 선전원 예: 정당, 단체, 인물
진술(What?)	●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 무슨 내용을 진술하는가? ● 어떤 문제가 묘사되는가? ● 어떤 모순이 발견되는가?	예: 상황, 사건, 인물, 문제
양식/형식(How?)	●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 어떤 방식이 사용되는가?	예: 과장법, 곡언법, 메타플랜 (Metaplan) 흑백그림, 공간분배, 풍자
수신인/수취인(Whom?)	● 누구의 마음에 호소하는 건가? ● 시사만평을 이해하기 위해 수신인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 정당동료, 이익단체, 기관, 시민단체 등
의도(Why?)	● 누가 공격받는가? ● 공격대상은 무엇인가? ● 시사만평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가?	예: 정치가, 프로그램, 이념 등
영향(What effect?)	● 시사만평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시사만평이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예: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
매체(What channel?)	● 시사만평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 매체가 소속된 곳은?	예: 신문, 전단지, 출판사, 기관 등

체크리스트: 시사만평

1. 특정한 정치적 테마를 위한 시사만평을 찾아서 수집하라.
2. 묘사된 인물, 상황,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라.
3. 시사만평의 비유, 상징, 양식수단을 해석하라.

4. 훌륭한 시사만평에서 "비판적 웃음"을 유발시키는 모순과 불합리를 규정하라.
5. 시사만평의 진술내지는 메시지를 하나의 핵심논제로 요약하라.
6. 핵심논제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의 핵심논제를 표현하도록 시도하라.
7. 다른 자료(신문기사, 논평 등)에 근거하여 시사만평의 진술을 검토하라.
8. 그 핵심진술과 (그날의) 시사문제와 연관하여 2개의 (또는 여러 개의) 시사만평을 비교하라.
9. 분석된 예(비판근거, 대안, 영향력)를 근거로 하여 시사만평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라.
10. 시사만평의 진술에 대하여 근거가 있는 자기 자신의 판단(반대 입장 내지는 동의)을 표현하라.

→ 3) 교육성과

- 정치사회적 이슈의 다양한 견해를 접함으로써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료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촉진 시키게 된다.

→ 참고자료 1

시사만평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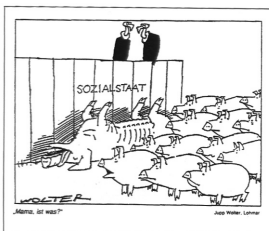


Zeichnung: Schwalmenz, in: TSP 20.7.1992

여행사: 푸른 헬멧을 쓰고 전세계로!
젊은 이들을 위한 특별세일



Haitzinger, Horst: Politische Karikaturen.
München 2000, S.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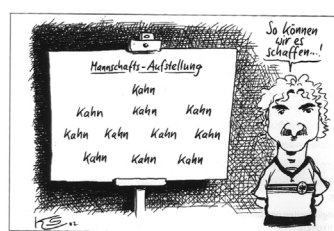
Zeichnung:
Jupp Wolter

사회복지국가



Zeichnung: Stuttmann, in:
Badische Zeitung vom 29.06.2002

내일 우리 소비자들은 유로가 비싸서
데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사려고....



Zeichnung: Stuttmann, in: Badische Zeitung vom 25.06.2002

팀 구성원 : Kahn
Kahn: 우리는 해낼 수 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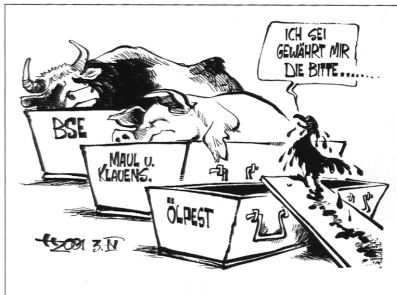
Zeichnung: Hatzinger, in:
Badische Zeitung vom 20.06.2002

2003년도 예산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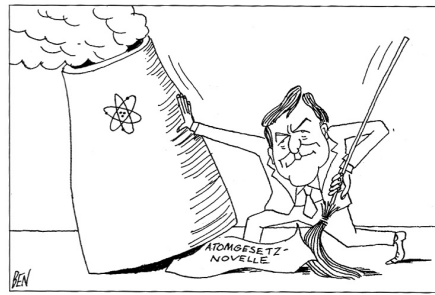
Zeichnung: Müssil, Juni 1993

정당들/시민



Hatzinger, Horst: Politische Karikaturen.
München 2001, S. 10

(소)광우병, (돼지)입과 발톱병(Maul, u. Klauens.)
(닭)기름혹사병(나만 이라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Zeichnung: Gabor Benedek, in: Süddeutsche Zeitung vom 26.01.1999

핵관련법 수정안

5. 마무리하기 영역



5-1 벌집



1) 교육목적

- 참가자들로 하여금 강사에게 할 질문을 정리할 시간을 주거나, 읽은 텍스트와 관련된 혹은 자신들의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다.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② 준비물 - 없음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개요설명 및 조편성	5 분
전개	조별 질문 및 응답	10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 ① 주로 강의의 후반부에 사용한다.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누어 준 인쇄물을 읽은 뒤, 시청각 자료를 본 후 또는 강도가 높은 개별작업이 끝난 후 참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두세 명 단위의 조를 만들게 한다.
- ②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의문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유도한다.
(예: "지금까지 약 15분 정도 쉬지 않고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데로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은 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후 제게 할 질문을 공동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세요?' 라는 물음에 이어지는 어색한 분위기는 강사나 교육 진행자에게 적잖이 걸림돌이 되는 요소다.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방법이 벌집이다.

벌집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참여자들이 뽕뽕대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 ③ 벌집 게임이 끝난 후,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며 사용목적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참가자들이 훨씬 빨리 기법 습득을 익히게 할 수 있다.

벌집 게임은 통해 옆의 참가자와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지식이나 깨달음의 공유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가가 정확해지고,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를 얻어 진행자에게 주저함 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이 “벌집”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종종 교육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는 옆 사람과의 잡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동안 금기처럼 되어오던 다른 참가자와의 의견교환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 3) 교육성과

- 질문이 강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궁금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 학습자 상호간에 깨달음의 공유화가 가능하게 한다.



5-2 10초 퍼즐



1) 교육목적

- 강의 시작 전 참여자 스스로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킨다.
- 동시에 자신들의 참여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10분
- ② 준비물 - 퍼즐

→ (2) 교육구성

단계	주요 활동	소요시간
도입	진행 요령 설명	2 분
전개	준비한 퍼즐 10초 간 보여주기	1 분
	준비한 퍼즐 다시 한 번 보여주기	1 분
	퍼즐 맞추기	3 분
마무리	피드백	3 분
		총 10 분

→ (3) 진행순서

- 두꺼운 종이카드를 사용한 방법: 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필요한 만큼 미리 준비한 뒤 단어나 구절 단위로 나눠 두꺼운 종이에 기록한 후 이를 뒤섞어서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준다.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는 문장을 가장 빠른 시간에 조립해 내는 조가 승리하는 게임이다.
- OHP를 사용한 방법: 강사는 미리 준비한 OHP를 참여자들에게 비춰준다. OHP 필름에는 강의 주제나 목적 혹은 화두가 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문장이 단어나 글자단위로 분리되어 미구 뒤섞여 있다. 가장 신속하게 문장을 조합해 내는 참여자가 승리하는 게임이다.

- 신문기사를 사용한 방법: 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나 사설을 문장단위로 다른 뒤 그 순서를 뒤섞어 놓거나 아니면 텍스트의 문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지운 뒤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골라 넣은 방식도 가능하다.
-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방법: 주제와 관련된 만화 컷이나 애니메이션을 보여 준다. 이들 그림에는 결정적인 대사가 지워져 있다. 이를 각자가 채워 넣은 뒤 소개를 하고 가장 호평을 받은 참여자가 승리하는 게임이다.
- 그림을 사용한 방법: 강사는 강의하려는 내용이나 이를 견주어 설명할 수 있는 몇 장의 그림을 OHP 필름에 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크기로 미리 준비하고, 이 그림들을 강의가 시작할 때에 참여자들에게 보여준다. 참여자는 소개된 그림을 가지고 나름대로 강의안을 만들거나 이야기를 꾸며본다.

〈Tip〉

강의 시작 전, 주제가 되는 문장이나 텍스트를 진행자가 소개하기 보다는 참여자 스스로 게임을 통해 찾아보게 함으로써 다음에 올 정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자신들의 참여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법이다.

→ 3) 교육성과

- 교사나 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데 유용하다.
-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교육의 목표를 더욱 높일 수 있다.

→ 5-3 마인드 맵핑(Mind-mapping)

→ 1) 교육목적

-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연계성을 이해시킨다.

→ 2) 내용

→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20분 내외
- ② 준비물 - 종이, 필기도구

→ (2) 교육구성

단 계	주 요 활 동	주 요 활 동
도 입	개요설명	5 분
전 개	Mind-Map 작성	10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20 분

→ (3) 진행순서

'Mind-Mapping'은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업무에서, 공부할 때에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계획을 짤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 ① 우선 한가지 주제를 놓고 Brain-storming을 한다.
- ② 이를 통해 얻어진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MindMap으로 옮기는 작업은 퍼즐(조각 맞추기)을 하는 법과 유사하다.
- ③ 만들어진 마인드맵은 전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명을 덧붙인다.

잘 만들어진 마인드맵의 특성은 한눈에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다는 것과 복잡하게 얽힌 각 구성요소의 인과관계가 재미있고 단순하게 표현되어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느낄 때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여 총체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제 교육에도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마인드 맵핑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리적인 면과 창조적 면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이다. 또 보다 효과적 정리라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저장이라는 목적도 있다. 마인드 맵핑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 3) 교육성과

- 수리적인 면과 창조적인 면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개별 요소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 고 문 헌

- 구득환. 1991. 『사회과교육론』. 서울: 교문기획.
- 김민정. 2004. "여성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신일·전득주 외 편. 199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전망."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서울: 학문사.
- 김영민 외. 2003. 『생태와 환경』. 서울: 교학사.
- 김용찬. 2005.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호성. 2003.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④-대만." 『시민사회』. 제9호(봄호).
- 로버트 달 저, 김왕식 외 역. 1999. 『민주주의』. 서울: 동명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 분석 연구사업보고서』.
- 박래영. 1995. 『세계화를 위한 노동교육의 이념과 역할』. 한국노동교육원.
- 박병석. 2004. "독일정치교육의 의미 · 과제 · 실행체계." 『FES- Informations -Series』. 2004-4. Friedrich-Ebert-Stiftung.
- 박상준. 2006.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사르토리. 1986. 『현대정당론』. 어수영 역, 서울: 동녘.
- 서준원. 200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추진과정과 향후과제." 『한국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편, pp.1~47.
- 서준원. 2002.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21세기 한국정당과 민주시민교육』. 제3차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 밝은정치시민연합 공동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p.37~53.
- 선거연수원. 2003. "독일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Wahl-O-Mat) 설명자료." 『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선거 -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심포지엄자료집.
- 선거연수원. 2004. 『시민정치교육 총람』. 서울: 엠.에드.
- 선거연수원. 2004. 『한국 정치교육의 현황과 미래』. 민주시민교육 세미나 자료집.
- 선거연수원. 2005.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제도화』.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선거연수원. 2005. 『민주주의의 공공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방안』. 서울: 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2006.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참여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송창석. 2004. "시민참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방안 -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입법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선거와 시민참여,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4 춘계학술세미나 자료집. pp.89~118.

- 신두철. 2003a. “독일의 정치교육제도와 시사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pp.285~289.
- 신두철. 2003b. “참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방법-이론과 실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 신두철. 2004.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사점.” 『선거연수원 주최 한국정치교육의 현황과 미래 심포지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 신두철. 2005a. “독일의 다원주의적 정치교육의 의미와 체계.” 『NGO연구』. 한국NGO학회. pp.285~308.
- 신두철. 2005b. “시민교육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pp.372~378.
- 신두철. 2007. 『참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방법』. 서울: 선거연수원.
- 신두철· 김원익. 2004. 『선거법과 정당제도』. 서울: 엠-에드.
- 신두철· 허영식. 2008. 『민주시민교육 정석』.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신두철· 허영식. 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II: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신두철외 역. 2007. 『시민교육방법 트레이닝』. 서울: 엠-에드.
- 심지연 편. 2003. 『현대 정당정치 이해』. 서울: 백산서당. 최한수. 1999. 『현대정당론』. 서울: 을유문화사.
- 이영기. 1998. “독일의 정치교육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인가?” 명지대학교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편. 『명지대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 103-127.
- 이해영. 1999.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실태.” 한국자유총연맹.
- 정선영. 2005. “초등사회과에서 평화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적용: 미래관련 교수법을 중심으로.”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완호 외. 2003. 『생태와 환경』.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정창화 외. 2006. “SWOT분석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조직모형 구축 방안.”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와 실태』. 서울: 엠-에드.
- 정한기. 2004.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고통공감에 기초한 통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54-165.
- 정호범. 1994. “이문화 이해교육의 관점에 기초한 통일교육.” 『사회과교육』. 제27호. pp. 106-118.
- 조배근. 2003. “초등사회과에서 미래워크숍 방법의 적용방안.”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0. “올바른 선거참여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개선방안-선거참여와 시민의식 성장.” 『

- 2002 공명선거 심포지엄 발제문』 .
- 조영식 편, 1995. 『세계시민론』 .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 조영식 편, 1995. 『세계시민론』 .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부.
 -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발전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 추정훈, 2003. “사회과교육 목표로서의 민주시민성.” 『사회과교육』 . 41-4, pp. 5-21.
 - 통계청, 2007.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삶』 .
 - 통일부, 2003. 『2004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서울: 통일부.
 - 한국교육개발원 편, 1994. 『민주시민교육』 .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편, 1998. 『민주시민생활용어사전』 . 서울: 유풍출판사.
 - 한규선, 2003a.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 ⑥-영국.” 『시민사회』 . 제11호(가을호).
 - 허영식, 2003b. 『세계화 · 민주화 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원미사.
 - 허영식, 2004a. 『지구촌관리와 지구촌학습: 21세기의 새로운 지평』 . 서울: 원미사.
 - 허영식, 2004b. 『과학기술과 현대사회』 . 서울: 원미사.
 - 허영식, 2006. 『현대사회의 시민교육: 이론과 실제』 . 서울: 원미사.
 - 허영식, 2007.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 서울: 원미사.
 - 허영식·신두철, 2007. 『민주시민교육 핸드북』 . 서울: 도서출판 오름.
 - 황병덕, 1997. “독일 정치교육 연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 pp.261~296.

- Ackermann, P. et al. 1994. Politikdidaktik - kurzgefasst. Planungsfragen für den Politikunterricht, Bonn: BpB.
- Asbrand, B. and Scheunpflug, A. 2005. “Globales Lernen,” in: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Bonn: BpB, S. 469-484.
- Banks, J. 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Inquiry, Valuing, and Decision-Making, New York: Longman.
- Barth, J. et al. 1984. Methods of Instruction in Social Studies Education, Lanham: Univ. Press of America.
- Beck, U. 1997. Was ist Globalisierung? Frankfurt/M.: Suhrkamp; 조만영 역(2000). 『지구화의 길』. 서울: 거름.
- Beer, W. 1999. “Themenfeld: Wissenschaftsverständnis, Risikoabwägung und die Beurteilungskompetenz der Laien”, in: BpB(Hrsg.), Gentechnik, Bonn: BpB, S. 454-494.
- Besand, A. 2005. “Medienerziehung”, in: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Bonn: BpB, S. 419-429.
- Branson, M.. 2002.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 American Perspective”,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편,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7호, pp.79-94.
- Breit G. 1992. “Sozialhilfe - Didaktische Planung von politischem Unterricht für die Sekundarstufen I und II”, in: Breit, G./Massing, P.(Hrsg.), Grundfragen und Praxisprobleme de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S. 444-463.
- Breit G./Schiele, S.(Hrsg.). 1998. Handlungsorientierung im Politikunterricht, Schwalbach/Ts.: Wochenschau.
- Breit, G. 1991. “Fühlen und Denken im politischen Unterricht”, in: Schiele, S./Schneider, H.(Hrsg.), Rationalität und Emotionalität in der politischen Bildung, Stuttgart: Metzler, S. 58-78.
- Breit, G. 2005. “Problemorientierung”, in: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Schwalbach/Ts.: Wochenschau, S. 108-125.
- Breit, G./Schiele, S.(Hrsg.). 2004. Demokratie braucht politische Bildung, Bonn: BpB.
- Buchstein, H.2000. “Bürgergesellschaft und Bürgerkompetenz”, in: Politische Bildung, H. 4, S. 8-18.
- Bundeszentral für politische Bildung. 2003. Jahresbericht 2002/2003. Bonn.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1997. “Eine Welt”, in: Zeitlupe, Nr. 34.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1999. Politische Erwachsenenbildung, Bonn: BpB.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2001. Politikunterricht im Informationszeitalter, Bonn: BpB.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2003. “Globalisierung”, i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r. 280, Bonn: BpB.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2004a. Jahresbericht 2002/2003, Bonn: BpB.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2004b. Methodentraining für den Politikunterricht, Bonn: BpB.
- Center for Civic Education. 1994. 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 Calabasas, CA: CCE.
- Evans, R. et al. 1996. Handbook on Teaching Social Issues, Washington: NCSS.
- Hagedorn, F. 1997. “Lernort Cyberspace - Bildung auf dem Weg zur Medienkompetenz?”, in: kursiv - Journal für politische Bildung, H. 3, S. 13-17.
- Harth, T. 2001. “Neue Lernchancen mit dem Internet?”, in: kursiv - Journal für politische Bildung, H. 3, S. 13-19.
- Henkenborg, P. 2003. “Schulen in pädagogischer Bewegung - Herausforderungen und Ansätze für politische Bildung. Schulreform und politische Bildung - ein Beispiel”, in: Journal - für politische Bildung, H. 3, S. 36-40.
- James A. Banks 저, 최병모 외 옮김. 1989.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Kahlert, J. 2005. “Umweltbildung”, in: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Bonn: BpB, S. 430-441.
- Kremer, A.(2001), “Physik, Chemie und Politik - Lernprojekte im Überschneidungsfeld”, in: kursiv - Journal für politische Bildung, H. 1, S. 26-32.
- Kuhn, T.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명자 역. 1999.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두산동아.
- Merryfield, M. and White, C. 1996. “Issues-Centered Global Education,”in: Evans, R./Saxe, D.(eds.), Handbook on Teaching Social Issues. Washington: NCSS, pp. 77-87.
- Mickel, W.(Hrsg.) 1999. Handbuch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BpB.
- NCSS. 1994.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Expectations of Excellence, Washington:



NCSS.

- Nitzschke, V. 1992. Politik. Lernen und Handeln für heute und morgen, Lehrerband, Frankfurt/M.: Diesterweg.
- Prote, I.1997. “Politische Bildung und Erziehung in der Grundschule”, in: Sander, W.(Hrs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Schwalbach/ Ts.: Wochenschau, S. 157-172.
- Sander, W. 200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Jahrtausendwende: Perspektiven und Modernisierungsaufgabe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5, S. 36-44.
- Sander, Wolfgang. 2003. Politik in der Schule. bpb.
- Sander, Wolfgang. 2004. Geschichte, theoretische Konzeption und aktuellen Herausforderung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민주시민교육을 제1차 한독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 pp.3-18.
- Sander, Wolfgang.(Hrsg.). 2005. Handbuch politische Bildung, Schwalbach/ Ts.: Wochenschau.
- Schiele, Siegfried. 2004. Ein halbes Jahrhundert staatlich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in Ost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6.Februar. pp.3-6.
- Schuh, G. et al. 1997. “Multimedia - ein Weg aus der Bildungskrise?”, in: kursiv - Journal für politische Bildung, H. 3, S. 33-34.
- Siegfried Frech 외, 2004, Methodentraining für den Politikunterricht, Schwalbach, Wochenschau Verlag.
- Stanley P. Wronski·Donald H. Bragaw 저, 윤덕중 외 역. 1998. 『사회과교육과 사회과학』 . pp.104-123
- Stiftung Entwicklung und Frieden. 2003. Globale Trends 2004/2005. Fakten, Analysen, Prognosen, Frankfurt/M.: Fischer.
- Stiglitz, J. 2002. Die Schatten der Globalisierung, Berlin.: Siedler.
- Stopsky, F. et al.1994 Social Studies in a Global Society, New York: Delmar.
- UNESCO. 1994. Tolerance: the threshold of peace. A teaching/ learning guide for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94/WS/8, Paris: UNESCO.
- UNESCO. 1995.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
- Weisseno, G. 2005. Politik besser verstehen - neue Wege der politischen Bildung, Wiesbaden: VS.
- Weisseno, G.(Hrsg.) 1999/2000. Lexikon der politischen Bildung, 3 Bde., Schwalbach/Ts.:



Wochenschau.

- Weltbank(Hrsg.). 2006. Weltentwicklungsbericht 2006: Chancengerechtigkeit und Entwicklung, Düsseldorf: Droste.
- Wessely, U. 2004. “Politische Bildung in der globalen Wissensgesellschaf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7-8, S. 32-38.
- Wochenschau Verlag(Hrsg.). 2000. “Zivilgesellschaft”, Wochenschau- Themenheft Sek. II, Nr. 2, Wochenschau: Schwalbach/Ts.
- Woolever, R. et al. 1988.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Woyke, W.(Hrsg.). 2000. Handwörterbuch Internationale Politik, Opladen: Leske + Budrich.
- Wuppertal Institut für Klima, Umwelt, Energie(Hrsg.). 2005. Fair Future. Begrenzte Ressourcen und globale Gerechtigkeit, München: C. H. Beck.

NYPI 창의적체험활동시리즈 V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매뉴얼
(중·고등학생용)

인 쇄 2010년 12월 27일

발 행 201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원장 이명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02-725-5216)

ISBN 978-89-7816-925-7(9333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